

2017
하반기
통권 182호

홍성문화

- 논 단 | 홍성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탐구 II (조원찬)
| 금마면 월암리 오현택씨 가옥 (한종구)
| 조선의 출판과 글쓰기 문화 (김경수)
- 홍성의 전설 | 백야 김좌진 장군은 어떤 계기로
소문난 악동의 허물을 벗었을까 (김정현)
- 기행문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I (정명순)
- 나의 삶 나의 예술 | 송복 입은 서예 서각 화가 이달세씨 (조성미)
- 시 & 수필 | 비밀 (황정옥)
| 가을 풀씨에게 (현자)
| 조그만 행복 (이상현)
| 어느 아버지의 꿈 (이영희)
| 선물 (송미경)
- 독자기고 | 회상 (김행분)
| 축복 (이미나)
| 러시아 3박4일 문화탐방을 가다 (정미선)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2017 하반기
Vol. 182



3223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 : 041-632-3613
E-mail : hscult@naver.com
편집주간 : 조성미
편집위원 : 김정현 · 조원찬 · 조남민 · 정선영
편집디자인 : 김기연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 유환동
편집인 : 홍성문화편집위원회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홍성문화원
인쇄처 : 충남인쇄사(041-634-3114)

Contents

- 04 논 단 | 홍성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탐구 II (조원찬)
| 금마면 월암리 오현택씨 가옥 (한종구)
| 조선의 출판과 글쓰기 문화 (김경수)
- 38 홍 성 의 전 설 | 백야 김좌진 장군은 어떤 계기로
소문난 악동의 허물을 벗었을까 (김정현)
- 54 기 행 문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I (정명순)
- 64 나의 삶 나의 예술 | 승복 입은 서예 서각 화가 이달세씨 (조성미)
- 72 시 & 수 필 | 비밀 (황정옥)
| 가을 풀씨에게 (현자)
| 조그만 행복 (이상헌)
| 어느 아버지의 꿈 (이영희)
| 선물 (송미경)
- 78 독 자 기 고 | 회상 (김행분)
| 축복 (이미나)
| 러시아 3박4일 문화탐방을 가다 (정미선)
- 85 제1회 홍성역사인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
- 96 홍성문화원 소식 |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및 음악회
| 역재방죽 달빛데이트
| 제4회 내포콰르텟 정기연주회

논 단

홍성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탐구 Ⅱ

조 원 찬¹⁾ (갈산고등학교 교사)



▲ 『홍주지도』(1872년). 홍주읍성의 아래쪽에 동문(조양문)이 있고 그 왼쪽으로 수문이 보인다.

03

홍성지역 동학농민혁명 읽기자료²⁾

1. 1872년에 만든 규장각본 『홍주지도』와 홍성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본 『홍주지도』를 바탕으로 살펴본 조선 후기 홍주목은 현재의 홍성군을 비롯하여, 청양군의 남양면과 화성면 일대, 보령시 천북면 일대, 당진시의 합덕읍, 송악읍, 신평면, 면천면 일대, 서산시의 고북면과 운산면 일대에 해당되어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었다. 한편, 홍주목의 행정구역 안에 위치했던 결성현은 호구 총수가 제작된 1789년(정조 13년)에 현내, 화산, 광천 등을 합쳐 10개 면을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 32년)에 홍주부 결성군이 되면서 현내, 은하, 구항, 화산, 용천, 가산, 광천, 두암, 상서, 하서면 등 10개 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홍성군에 편입되면서 결성, 광천, 은하, 구항, 서부면 등으로 나누어졌다.

2. 박인호가 홍성지역에 동학을 전파하다

수련을 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동학의 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포덕천하(布德天下),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광제창생(廣濟蒼生),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우리 동학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동지가 많아야 한다 생각하시고, 그 때의 충청우도, 지금의 충남 일대에 덕산을 위시해서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면천, 홍성, 광천, 청양, 예산, 온양 등지에서 동지를 구하여 입도를 시키고 그들과 협력해서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진리

1) 갈산고등학교 역사교사, 홍성문화원 이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검정심사위원(2013, 교육부), 유물·유적으로 보는 한국사 앱 편찬자문위원(2014~5, 교육부), 【저서】『충남지역 탐구 여행 종합자료』, 『충남역사인물』, 『홍성의 문화유적』, 『지도로 찾아가는 조선시대 홍주목』, 『홍주대관』, 『백제+통일신라편』, 『문화유적분포지도』, 홍성군, 『지도(조선시대 후기 자료집)』, 『테마별 역사체험 우리 고장 홍성』, 『홍성군지』, 5권 지명과 마을이야기, 『홍성학』, 『충남의 향토사 연구 현황과 전망』 등 다수

2) 읽기자료 가운데 어려운 용어는 필자가 () 안에 한자와 더불어 설명글을 붙였다.

와 목적을 선포하니 이에 응하며 입도(入道 : 동학에 들어옴)한 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

- 출처 : 박래원, 『춘암상사의 행적』(상), 『신인간』, 1972년, 1·2월호, 293호, 27쪽)

3. 『홍양기사(洪陽紀事)』³⁾로 본 동학 세력의 확대



▲ 홍주읍성 모형도 중에서

○ 1894년 7월 7일

내가 빈 관아(홍주읍성 안, 홍주목 동헌에 해당되는 안회당으로 추정됨)에 있었는데, 밤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시끄러운 것이 파리(지방 민요) 같기도 하고 무당이 외우는 것 같았다. 시장 거리에서부터 성 밖의 교외까지 가득하여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밤새 끊이지 않아 괴이하게 여겨 시중을 드는 시동에게 물어보았더니, 시동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동학이 주문을 외는 소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부터 밤마다 점점 더해져서 아전, 군교, 관노비, 사령 등과 같은 자들도 감염되지 않는 이가 없었다.

3) 1896년 1월 17일 홍주의병 거사계획에 참여하였던 임한주(林翰周)가 엮은 기록

○ 1894년 7월 9일

우연히 동쪽 문루(조양문)에 올랐다가 마침 패류(悖類 : 동학교도)가 시가를 제멋대로 다니며 공사간의 말과 노새를 빼앗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피하고 감히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 남쪽에서 바라본 홍주읍성과 그 주변(오른쪽에 조양문이 있다.)

○ 1894년 8월 19일

동문(東門) 밖에 나가보니 10리의 길에 행렬이 가득 이어졌는데 모두 비도(匪徒 : 동학교도)들이었다. 어떤 이는 살 쥔 큰 말을 타고 제멋대로 달려서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였고, 길을 걷는 자들은 팔을 흔들고 확보하여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매우 날뛰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상복(喪服)을 입고 큰 노새를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말을

타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짐을 실은 말 1필이 있었는데 돈을 가득 싣고 따르고 있었다. 그가 이창구라고 하는 자인데 지금 최적(崔賊 : 최시형)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예산 신레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 1894년 10월 3일

각 지역의 동도(동학교도)가 최괴(최시형)의 지휘라고 하며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고 곳곳마다 지렁이처럼 이어졌다. 서산 수령 박정기, 태안 부사 신백희, 별유관 김정제가 모두 그 피해를 당했다. 해미·예산·덕산 등의 고을에 서는 군기를 모두 빼앗겼다. 해미성·덕산·대천·예산·목시 등지에서 진세를 이루어 그 무리를 나누어 보내 노점을 지켰다가 행인을 잡아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데려갔다.

4. 『홍양기사』로 본 홍주읍성 방어 계획

○ 1894년 7월 6일

문무 관리들을 통솔해서 성 위의 담을 튼튼하게 손보고 화포와 창을 수리하였다. 김병돈을 중군으로, 한응준(만해 한용운의 아버지로 추정됨)을 참모로 삼아 성 아래 병정을 훈련시켜 미리 대비하는 방책을 세웠다.

○ 1894년 10월 3일

주공(이승우)이 말하기를, “관병(官兵 : 관군)을 모집하여 5개 진영으로 나누었다. 남영관(南領官)에 김명현, 동영관에 이창욱, 중령관에 이능연, 서령관에 한상익, 북령관에 김주현, 군기감관에 김관성을 정하였다. 중군 김병돈이 군무를 모두 감독하였고, 양향수향(糧餉首鄉) 이규태가 말 먹이용 풀과 땔나무 및 햇불 등을 주관하였다. 오위장 장영식은 영내에서 조달할 각종 물건을 담당하였다. 기관(記官)

이창억으로 하여금 경향 각 관아와 인근 고을의 모든 문첩을 관할하게 하였고, 최학연·이기용·김굉현 등으로 하여금 각각 전담하게 하였다. 이석범·김동현·김석교를 군중에서 뽑아 군관의 직임을 맡기었다. 부상(負商) 중에서 재빠르고 재치가 있는 4~5명을 뽑아 여러 곳에 보내어 그들의 동정을 정찰하였다. 유희와 농보군이 연이어 성원하여 마을의 장정들을 모집해서 번을 나누어 출입하였다. 성안에 늘 지키는 병사들이 700여명이 되었다.”

5. 『홍양기사』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 1894년 10월 6일

비도(동학교도)가 결성에 들어가 그 인부(印符：도장)와 군기를 빼앗았다. 결성 현감은 밤에 달아나서 겨우 몸을 피하였다.

○ 1894년 10월 8일

정탐하던 병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비도(동학교도) 수백 명이 지난밤에 오천 수영에 들어와서 군기를 모두 탈취하여 배에 싣고 갔는데, 그 행보를 헤아려보면 오후에 웅암(광천 웅암리)과 광천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관군 중에서 정예병 260여명을 뽑아 김동현·김석교·이석범 등이 이끌게 하고 군대를 출전시키라고 급히 명령을 내렸다. …(중략)… 홍주와의 거리가 30리 되는 광천 시장에서 적을 만났다. 적이 먼저 산 위에 자리를 잡아 지형의 이로우를 얻고 있었고, 우리 군대는 산 아래에 있어 공격하기가 어려워 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석범이 칼을 뽑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언덕을 뛰어올라가니 뒤에 있던 군대가 한꺼번에 산에 올라갔다. 화포 소리가 나는 곳에 맞아 쓰러진 적들이 수십 명이었고, 적들이 일시에 놀

라서 흩어졌다. 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9명의 적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군기를 모두 거두어서 돌아왔다. 대포가 40여 문이고 화약이 수천 근이었으며 그 밖에 갑옷·활·화살·불화살·초 등의 물건은 한 달을 쓸 수 있을 정도였다.



▲ 옛 광천 시장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이동 방향(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함)

○ 1894년 10월 9일

매성(광천읍 매성리 매성)의 농보군이 광천에서 패하여 흩어진 적을 추격하여 그들의 돈 5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돈 중에서 200냥을 농보군의 군사들을 먹이는 비용으로 하였다.

6. 홍주읍성 전투에 대해 박인호가 돌이켜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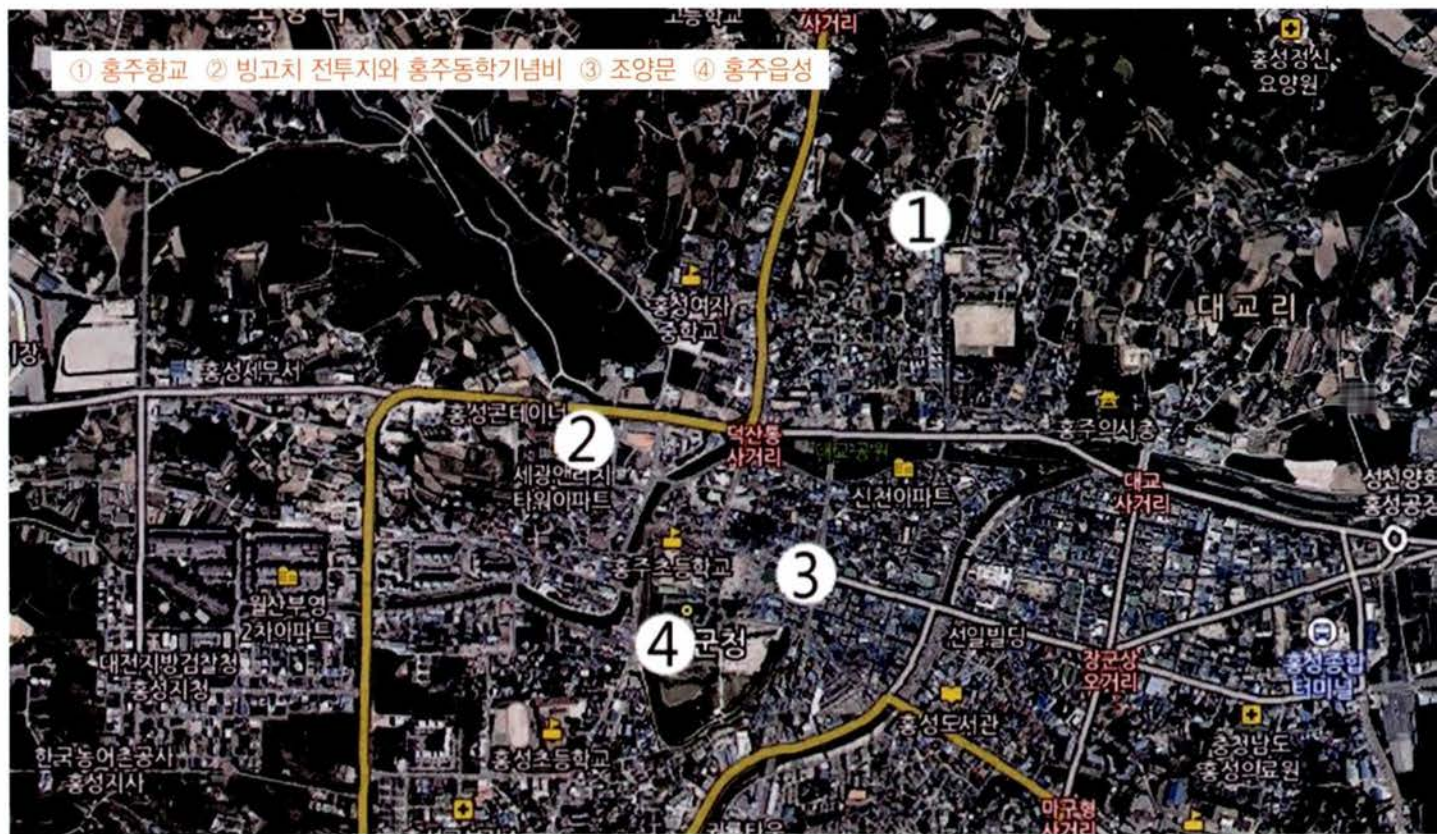
명령을 내려 성을 넘기로 하자 성안에서는 성 밖으로 불을 내어던져서 성 밖에 있는 집들에 다 불을 싸질러 놓았소. 그런데 우리는 쪼 한 묶음씩 가지고 성 밑으로 가서 그

결 쌓아놓고 성을 넘기로 하였으니 일이 어떻게 되었겠소. 어두운 밤 화광이 충천한 속으로 징을 울리며 성으로 달려 진격하는 우리 동학군들은 쌓아놓은 짚단 위에 불이 당겨 타죽는 사람, 넘어가려면 안에서 총으로 쏘아 맞아 죽는 사람, 시간은 지나가건만 홍주를 쳐들어가기는커녕 성내의 사기만 더 북돋게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격전에 또 격전이 거듭되고, 동학군의 죽은 자가 3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나로서 지금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모한 것이었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오. 날이 밝아오나 결국 홍주 함락은 단념할 수밖에 없음으로 진은 헤어지고 상경하자던 용기까지 무너지고 말았소.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 2-갑오동학기 병실담」)

04

홍성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1. 홍성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도



2. 홍주향교

개요 · 상태	중국의 공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이이 등과 같은 이름 높은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 기관이다.
문화재분류	충청남도 기념물 제135호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75번길 93
연락처	041-630-1362 (홍주향교)

홍주향교는 고려 말에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조선 태종 8년(1408년)과 태종 18년(1418년)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 홍주향교(왼쪽은 명륜당, 오른쪽은 동재)

내포지역에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 홍주읍성을 공격할 때, 홍주향교는 동학농민군의 지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홍주향교를 지키며 저항하는 유생 7명을 죽이고 향교를 차지한 후 홍주읍성을 공격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 회의 결

과는 3, 4일정도 성을 포위하고 기다렸다가 공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동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곧바로 홍주읍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홍주향교 남쪽으로 홍살문과 삼문 사이에는 당시에 죽은 향교 유생 7명을 기리는 비석(칠의비) 및 비각이 있다.

3. 칠의비

개요 · 상태	1894년 내포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홍주읍성을 공격할 때, 홍주향교를 지키다 숨진 7명의 향교 유생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75번길 93
연락처	041-630-1362 (홍주향교)

홍주향교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1935년 세워진 비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 있다. 동학농민군이 홍주성을 공격할 때 홍주향교를 지키다 죽은 유생 7명을 기리는 비석으로, ‘칠의비’(七義碑)라 부른다. 이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오경근, 최민지, 방세웅, 방석규, 이준복, 서종득, 최학신은 홍양 사람으로 공자묘의 서재생(西齋生)이었다. 지난 갑오년 동학의 비적들이 군성(郡城 : 홍주읍성)에 들어닥쳐 제멋대로 분탕질을 하자 일곱 사람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적들은 흉악한 짓을 닦치는 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 성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은 재생이므로 성묘를 위하여 목숨을



▲ 칠의비와 비각

바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과연 적들이 이르러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대표가 “성묘는 존엄하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여섯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하였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 적들은 위협하여도 어쩔 수가 없게 되자 어지러이 흥기를 휘둘렀으며 모두 불태워 죽이고 떠났다. ...(하략)... 홍성 군수 종6위 훈6등 하준환 지음, 전성인 이장로 씀.”

4. 빙고치 전투와 홍주동학기념비

개요 · 상태	1894년 내포지역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군이 홍주읍성의 서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빙고치 전투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06



▲ 홍주동학기념비

빙고치 전투는 1894년 10월 28일 오후 4시, 동학농민군의 한 갈래가 현재의 홍성여고와 홍성여중 사이에 있는 홍성읍 소향리의 향산 마을과 소색골을 점령하고, 오후 4시 25분경에는 현재의 홍성읍 오관리의 세광아파트가 있는 빙고치의 일본군을 공격한 전투이다. 소색골과 보패골 사이에 펼쳐진 논을 가득 메우며 빙고치로 공격할 때 일본군의 일제 사격으로 수 명이 쓰러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하여 빙고치를 점령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군이 서문으로 도망가자 동학농민군은 기세를 몰아 서문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29일 오전 6시 동학농민군은 홍주읍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세 방면에 엄호병을 남긴 채 홍주읍성에서 약 1,500m 떨어진 응봉 고지(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와 내법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매봉재'라고 부름)로 물러났다.



▲ 월산에서 동쪽으로 바라 본 빙고치와 홍주읍성

그 후 오후 4시 30분까지 빙고치의 동학농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는 응봉을 거쳐 덕산 방향으로 물러났고, 빙고치의 군사는 오후 5시 즈음에 해미 방향으로 물러났다.

한편, 홍주향토문화연구회는 2006년 10월에 홍주동학기념비를 세워 빙고치와 홍주읍성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아픔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기리고 있다.

5. 홍주읍성과 조양문

개요 · 상태	홍주읍성은 조선시대에 홍주목사가 내포지역의 행정과 군사를 지휘한 곳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읍성을 둘러친 곳이다. 조양문은 홍주읍성의 동문이다.
문화재분류	사적 제231호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19번길 5
연락처	041-630-1226 (홍성군청)



▲ 조양문(홍주읍성 동문)

홍주읍성은 내포지역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다. 1894년에 내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충남 태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장차 한양을 공격하고자 했을 때 홍주읍성은 눈엣가시였다. 한양을 공격할 때 홍주의 군사가 뒤에서 공격해오면 자칫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례원 전투에서 승리한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이 한양을 공격하기에 앞서 뒤쪽의 부담을 덜기 위해 먼저 홍주읍성을 공격한 이유가 되었다.

1894년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동학농민군은 여러 방향에서 홍주읍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우세한 무기 때문에 홍주읍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홍주읍성의 동문인 조양문을 공격하던 결사대마저 무너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동학농민혁명의 의지마저 꺾일 수밖에 없었다.

본 글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홍주목 관할에서 있었던 홍주읍성 전투에 주목하였다. 홍주읍성 전투가 있기까지 홍성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움직임과 반(反)동학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홍주읍성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홍주읍성 전투와 관련된 유적지는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19세기에 우리나라는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고 삼정(전정+군정+환곡)이 문란해지면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고통 또한 매우 깊어 갔다. 나라 밖에서는 독점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된 제국주의를 앞세운 국가들이 문호개방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경제적 침략을 저지르고 있었다. 게다가 지배층의 비리와 수탈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빈번하게 발생한 자연재해와 질병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농민들은 벽서·소청·항조·거세 등의 소극적 저항을 벗어나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처럼 점차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60년(철종 11년)에 경주 출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창시한 동학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동학은 2대 교주인 최시형이 포접제를 정비하고 교조신원운동을 벌인 이후, 종교적 요구를 넘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탐관오리 숙청’, ‘외세 배척’ 등을 주장하였고 농민을 조직화하면서 대규모 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손화중과 함께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내용이 담긴 ‘백산 격문’을 발표하고 전주화약(1894년 5월 7일)을 맺을 무렵 홍주목 관할 영역에서도 현재 서산의 원벌(원평)에서 4월 초에 봉기가 일어났다.

그 후 전봉준의 남접 부대와 손병희의 북접 부대가 논산에서 연합하여 서울을 향해 북상하던 중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크게 싸울 무렵 홍주목의 중심지인 현재의 홍성지역에서는 빙고치 전투를 시작으로 홍주읍성 전투가 크게 벌어졌다. 그러나 이틀간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홍주읍성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결국 홍주읍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동학농민군은 패전을 거듭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공주 우금티 전투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 홍주읍성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승리했다면? 역사에서 가정이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사의 큰 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끝으로 홍성지역의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치려 한다. 홍성지역은 조선시대 홍주목의 중심지로서 기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다. 특히 근대사 가운데 일제의 침략에 무력으로 항거했던 홍주의병, 세도정치와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 및 제국주의를 앞세운 국가들의 문호개방 압력과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요구했던 동학농민혁명, 조선 후기 이후 우리나라의 천주교사에 있어 큰 희생을 치르며 천주교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 일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현재 홍성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각각의 입장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소통'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천년여행길, '홍주의병+동학농민혁명+천주교의 희생과 발전'을 모두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각각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소통하는 삶도 중요하지 않을까? 

논 단

금마면 월암리 오현택씨 가옥

한 종 구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금마면 월암리 오현택씨 가옥(사랑채의 부엌과 광 모습)

1. 마을의 인문환경 및 조사가옥의 조영배경

1.1 금마면 인문환경

금마면은 홍성의 동쪽에 위치한 면으로서 북동부에 옥천계(沃川系)에 속하는 변성암류가 분포하여 미륵산(彌勒山, 430m)을 비롯한 산지가 있고, 남서부는 편마상 화강암이 적색풍화된 구릉지대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금마군이라 하다가 고려시대에는 익주(益州), 조선시대에는 익산군에 속했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금마면이 되었다. 남서부의 구릉지와 평야에서 주로 주곡농업이 행해지고, 동고도리(東古都里)는 전주~논산 국도와 이리~봉동·금마~황등 간 지방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면의 중심지를 이룬다.

마을의 입지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예산군 응봉면(鷹峰面)과 대흥면(大興面), 서쪽으로 홍성읍(洪城邑), 남쪽으로 홍동면(洪東面)과 예산군 광시면(光時面), 북쪽 및 북서쪽으로 홍북면(洪北面)에 접하고 있으며 13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다.

퇴마산·철마산(鐵馬山) 등의 낮은 산지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높이 50~100m의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홍성읍·홍북면과의 경계를 따라 금마천(金馬川)이 화양리(華陽里)에서 송정거리(松亭巨里)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그 유역 일대에 비교적 넓은 평야를 이룬다.

한반도의 중추인 백두대간의 허리에서 갈라져나간 금북정맥이 천안, 청양을 거쳐 대천 앞 서해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일대에는 300~800m급의 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봉수산은 이 산들 중 하나다. 남으로 뻗은 주능선이 홍성과 예산의 군계에서 절반은 홍성군 금마면에 속해 있으며, 나



머지는 예산군 대흥면에 있다하여 대흥산이라고도 불린다.

동편에는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충청도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정상 동남쪽에는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인 사적 90호 임존성(任存城)이 남아있다. 보령의 오서산으로 뻗어가던 금북정맥은 공덕고개→숫고개를 거쳐 장곡면으로 들어섰고, 정맥의 웅장한 산에서 흘러 내린 깊은 계곡으로 인해 땅 이름도 긴골짜기라 하였다. 산성리는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1.2 월암리 인문환경

본 가옥이 위치한 월암리(月岩里) 봉암마을은 본래 홍주(홍성)군 평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월굴리, 신대리, 마사리, 봉암리, 천동 일부를 병합하고 월굴과 봉암의 이름을 따서 월암리라 하여 금마면에 편입되었다.

1.3 조사가옥의 현황

오현택씨 가옥의 안채는 100년 전, 사랑채는 70년 전에 지어졌는데 오현택씨는 1950년대 까지 살았으며, 지금은 매각되어 타인이 거주하고 있다. 조사 당시 가옥에는 할머니 한분이 살고 있었다. 지금 가옥의 사랑채는 사용하지 않으며 안채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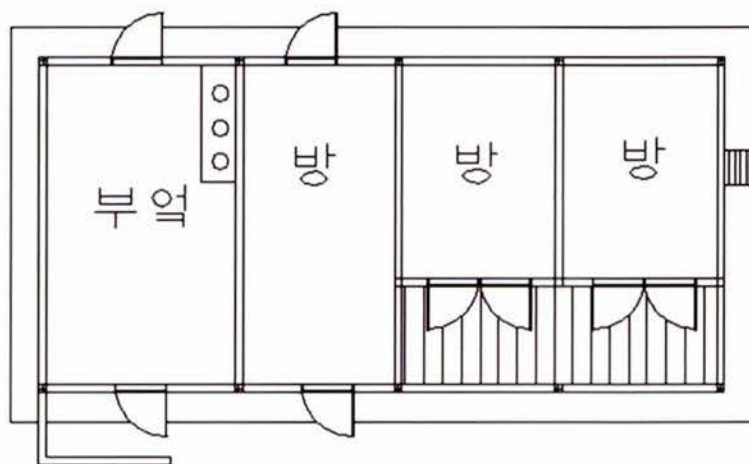
경제생활 및 의식주를 살펴보면 할머니는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밭에서는 고추농사를 짓고 계신다. 또한 사랑채 옆에 있는 외양간에서 소를 키우고 계신다. 식생활은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드시고, 점심은 주로 논이나 밭에서 드시고 있다.

2. 가옥의 내·외부 구성

2.1 가옥의 내부 구성

본 가옥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안채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전면에 ‘ㄱ’자형의 사랑채가 위치하고 그 뒤로 ‘ㄴ’자형의 안채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2.1.1 안채



▲ 오현택씨 가옥의 안채 평면도

대지의 북측에서 남향을 하고 있으며 안채는 일반적으로 안주인이 기거하는 곳이다.

안채의 평면구성을 보면 좌측에 부엌이 있고, 그 옆으로 안방과 방 2칸이 연결되어 있으며 2칸 방 전면으로 마루가 놓여있다.

(1) 안방

심벽(心壁) 구조이며 회반죽 마감벽이다. 특히 방의 입면(立面)을 보면 두면 또는 세면이 모두 창호가 구성되었고, 벽 대부분 벽지로 마감되었다.



▲ 안채의 전경 모습

인방과 인방 사이를 여물 섞은 진흙으로 메운 후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회반죽으로 마감한 벽은 다시 벽지로 마감하여 입면 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장식이 없이 매끈한 벽체가 되도록 하였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벽에 문을 달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벽지와 동일하게 도배하여 시각적으로 문과 벽이 구분되지 않도록 하였다.

(2) 마루

안방의 동쪽으로 마루가 위치하고 있는데 안방과 건넌방의 출입을 위한 전실의 기능을 담당하고, 여름에는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마루의 앞에는 마당에서 마루로 오르기 전에 기단이 있고, 그 위에 땃돌이 있다.



▲ 건넌방 모습

(3) 건넌방

안방과 대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건넌방은 안채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늑한 방이며, 일반적으로 며느리의 취침공간인 동시에 일상거처 공간이다.

내부 의장은 안방과 동일하며 뒷마루 쪽으로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로 통하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다.

(4)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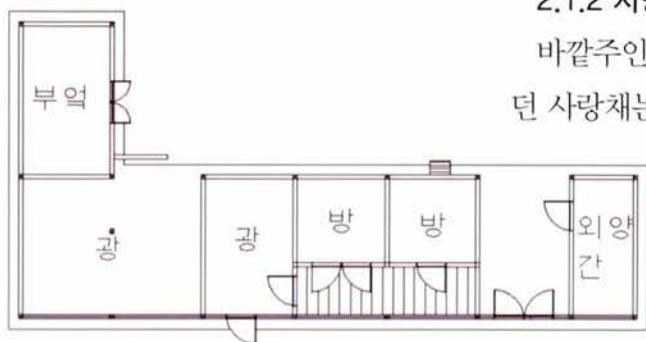
안방의 서쪽에 2칸 규모의 부엌이 있는데 취사와 안방의 난방을 담당한다. 부엌은 안방 옆에 붙어있으며 바닥은 흙이고 안방 쪽으로 아궁이와 부뚜막을 만들어 솥을 걸었다.

이 부뚜막의 반대쪽에 우물마루로 바닥을 이룬 찬간이나, 온돌방으로 된 찬방을 둔다. 찬간은 우물마루로 바닥을 이룬 공간이고 찬방은 온돌바닥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이곳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부엌의 아궁이 맞은편에 자리한다.

2.1.2 사랑채

바깥주인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사랑채는 안채 앞쪽에 위치하여 남향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부엌, 광, 큰 사랑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큰방, 작은방, 대문 그리고 외양간이 있다. 가옥의 안채에 비해 건물의 높이와 규모가 높고 크며, 비교적 정교하게 시공되었다.



▲ 오현택씨 가옥의 사랑채 평면도

(1) 사랑방

사랑채 툇마루와 면하고 있는 사랑방은 서쪽의 큰사랑과 1칸 크기의 작은사랑 2실이 있는데 통상 바깥주인의 거처 및 학습공간이나 내객의 접대공간으로 사용된다.

바닥은 온돌위에 장판지로 마감되어 있고 벽은 벽지, 천장은 종이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사랑방의 전면에는 쌍여닫이문과 외여닫이문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



▲ 사랑채 모습

(2) 툇마루

본 가옥의 툇마루는 사랑채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전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벽은 회벽,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3) 광

식량·부식·각종 생활용품 및 재화 등을 보관하고 저장할

목적으로 가옥에 곁들여서 마련해 놓은 건물 및 거기 딸린 시설과 설비를 광이라고 한다.

광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화 및 생활용구의 보관과 저장에 있으며, 재화 및 생활용품을 축적·관리·보관하고 출납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사용·유통시키게 되므로 그 가치와 효용을 높이게 된다.

저장·관리·출납하여 효용면에서 가치를 높인다는 기능면에서는 곳간이나 창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광은 규모면에서 곳간이나 창고보다 작고, 품목면에서 종합적이라는 차이가 있어 가벼운 창고라 하겠다.

본 가옥의 사랑채에는 작은 광과 큰 광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작은 광 정면에 현재 문을 지어놓았다. 또한 사랑뒀마루에서 작은 광으로 통하는 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랑채의 부엌과 광 모습



▲ 사랑채의 판문 모습



▲ 외곽담 모습

2.2 가옥의 외부 구성

2.2.1 담

본 가옥은 보호, 방어기능을 하는 2m 정도의 외곽담만이 있고, 구획을 해주는 내곽담은 없으며 이 외곽담도 거의 손실되고 북서쪽에 담만이 남아있다. 현재는 담 근처에 풀로 덮여있다.

2.2.2 문

출입문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문'은 모양이 다양했다. 실외의 문에는 대문, 중문, 협문 등이 있는데 대문은 집의 정면에 있어서 집을 대표하는 문이며, 평상시에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그맣게 낸 문은 협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와 같은 곳에 있어서 집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통하는 문은 중문이라고 한다. 문은 통과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므로 정성을 들여 아름답게 치장을 하며, 특별한 이름을 붙여 현판을 걸기도 한다.

대청에는 들어열개문인 분합문을 설치했으며 대청뒷면이나 부엌의 출입문으로는 판장문이라 불리는 두꺼운 문을 주로 설치했다.

본 가옥의 문은 사랑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을 통해 안채로 들어갈 수 있다. 정원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사랑채 앞쪽과 옆쪽에 작은 텃밭이 있다.



▲ 대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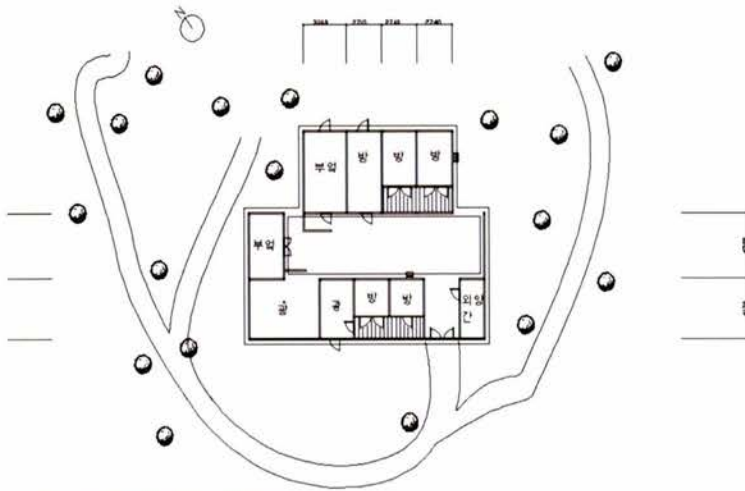
▲ 안마당 모습

2.2.3 마당과 정원

사랑채의 오른쪽 입구를 지나 가옥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이 나오는데 다른 가옥에 비해 작은 마당이 위치해 있다. 또한 안채 뒤쪽에는 작은 정원과 비슷한 공간이 있다.

3. 가옥의 일반구조 · 입면의장 및 환경설비

3.1 가옥의 일반구조



▲ 오현택씨 가옥의 배치도

3.1.1 기단

기단이란 전통가옥에서 우천 시에 빗물이 튀는 것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피하고, 동시에 건물의 균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밑 부분에 돌을 쌓거나 다른 자재를 써서 쌓아 올린 단인데, 돌로만 쌓기도 하며 기와와 벽돌 또는 돌과 벽돌을 섞어 쌓기도 한다.

오현택씨 가옥의 기단은 자연석을 이용한 막돌쌓기를 하고 있다.



▲ 대문의 초석 모습

3.1.2 초석

보통 목조건축의 기둥 밑에 놓는 돌을 가리킨다. 예전에는 주춧돌을 머릿돌이라고 불렀으며, 주춧돌을 놓을 때 정초식(定礎式)이라는 특수한 건축 의식을 거행하였다. 주춧돌의 형태는 건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 주택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암석이나 둥근 돌을 쓴다.

오현택씨 가옥의 초석은 사랑채는 잘 다듬어진 화강석 초석을 사용하였고, 안채는 자연형태의 커다란 막돌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1.3 바닥

마루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장귀틀과 괴중방에 동귀틀을 끼운 후 동귀틀 사이에 마루널을 쪽매로 끼운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 초석과 기둥 모습

3.1.4 기둥

오현택씨 가옥의 안채와 사랑채에는 모두 각기둥만 사용되었다. 기둥의 외주는 안채와 사랑채 모두 16cm 정도의 굵기이며, 기둥의 모접기는 평골모로 되어있다.

3.1.5 지붕가구

오현택씨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 모두 5량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3.1.6 천장과 처마

서까래는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루대에 지붕 물매의 방향으로 걸쳐 대고, 지붕널을 덮는다. 서까래는 보통 5cm 각재를 45cm 간격으로 도리에 큰 못질한다. 서까래의 이음은 도리 위에서 맞댄이음으로 큰 못질하고, 이음 위치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지붕 귀에 오는 서까래는 길이가 모두 다르며, 추녀 옆 또는 위에 큰 못으로 박는다.



▲ 사랑채의 천장과 처마 모습

귀서까래는 일반면에 있는 평서까래에 평행으로 걸 때와 귀의 한 점에 부챗살처럼 되게 걸기도 하며, 서까래의 연장선상의 한 점에 모이게 하여 방사형으로 거는 법도 있다. 평행으로 댄 서까래를 평행귀서까래, 방사형으로 댄 것을 말굽서까래라 하며, 부챗살 모양으로 댄 것을 선자서까래라고 한다.

본 가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있고, 그밖에 방에는 반자를 설치하였다.

3.1.7 지붕

사랑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안채는 70년대 지붕개량 사업으로 인해 과거의 모습은 볼 수 없고 현재는 함석지붕으로 바뀐 상태이다.

3.2 가옥의 입면의장

3.2.1 입면구성

(1) 사랑채의 입면구성

사랑채는 대부분의 상류주택과 같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고, 지붕과 개구부의 비율은 대략 1:1.2 정도로 지붕보다 개구부의 비중이 큰 편이며 개구부는 상인방, 하인방, 머름, 기둥, 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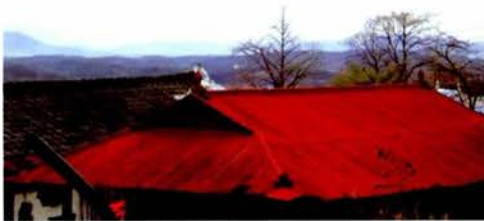


▲ 사랑채의 지붕 모습

사랑방 전면의 창호가 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창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적당한 높이의 머름을 갖추고 있고, 창호의 설치방식은 하인방 위에 적당한 높이로 머름을 설치하고 머름중방과 상인방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2) 안채의 입면구성

지붕과 개구부의 비율은 1:1.2이며, 개구부는 상인방, 하인방, 머름, 기둥, 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구부는 사랑채와 비슷한 형식으로 창호를 설치하였다.



▲ 안채의 지붕 모습

(3) 공간의 상호관계

안채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전체공간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채는 안채와 구별된 영역을 형성하면서 대문간의 영역과 밀접함을 나타내며, 이는 외부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내부로 진입했을 때만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가옥의 환경설비

3.3.1 취사 및 난방설비



▲ 부뚜막 모습

(1) 부뚜막

부뚜막은 솔이나 냄비 등을 올려놓고 가열하기 위한 시설로, 옛날부터 화로와 함께 취사용으로 사용하였다. 돌이나 흙을 쌓아서 위에 솔을 걸도록 만들었으며, 보통 부엌에 고정시켰다. 전면에 건초나 장작 등의 연료를 넣기 위한 구멍이 있다.

화덕은 불꽃과 연기가 솔의 밑 부분에만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열효율도 좋지 않고 연기도 가득 차는데 비해, 부뚜막을 온돌의 아궁이와 연결하면 여열(餘熱)을 이용한 난방도 가능하고 연기도 제거하기 쉽다.

본 가옥의 부뚜막은 대, 중, 소 3개의 솔이 있으며 원래는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다.

(2) 함실아궁이

함실아궁이를 만들 때는 구들 밑으로 불을 댈 수 있도록 방의 어느 한쪽을 다른 곳보다 깊이 파고, 구들장은 다른데 것보다 두꺼운 것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 구들장 밑으로 불길이 직접 들어가므로 방을 비교적 빨리 데울 수 있다.

노인이 기거하는 큰 사랑방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래의 더운 기운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불을 댔 다음 아궁이 입구를 막아 두며, 도회지의 함실아궁이에는 흔히 철제문을 달아 두는데 이러한 아궁이를 군불아궁이라고도 한다.

오현택씨 가옥의 함실아궁이는 안채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다.



▲ 안채의 전경과 굴뚝 모습

(3) 굴뚝

원래의 굴뚝은 찾아볼 수 없고, 현재는 가옥에 굴뚝을 새로 달았다.

3.3.2 기타시설

(1) 장독대

장독대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2) 측간

측간은 사랑채에 부속되어 있으며, 벽체는 회반죽 마감과 나무로 된 판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벽 하부에는 흙과 돌로 쌓아 막아놓았다.

(3) 다락

다락은 안방의 아랫목쪽 벽과 부엌과 면한 벽쪽에 방바닥에서 1.5척(45cm)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락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놓았다.

(4) 외양간

조사 당시 소 2마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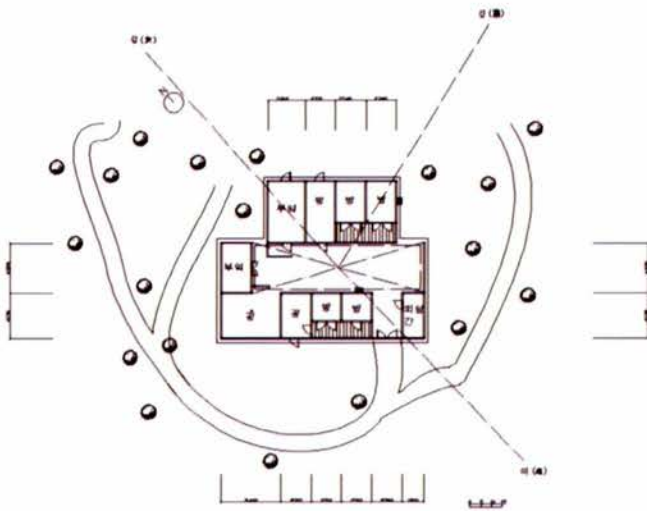


▲ 외양간 모습

4. 가옥의 풍수지리적 해석

오현택씨 가옥을 양택삼요론으로 살펴보면 리문진주(離門震主)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화뢰발복부부녀량명색기 주목화통명 대부대귀 공명현달
직보친구 처현자효 남충여수 삼년대길 팔년갱길 과갑최리
명평지일성뢰 수재출거장원량 궁서생홀이발달 부귀다시 차
택안손조갱리(花蕾發福剖符女量名色基 朱木火箇明 貸付對
句 共鳴弦達 織普天九 處賢者孝 男寵女囚 三年代吉 八年坑
吉 戈甲崔理 明平地一聲賴 手才出去壯元量 窮鼠生忽理髮達
富貴茶時 借宅安孫調坑理)



▲ 오현택씨 가옥의 양택삼요의 향

오현택씨 가옥의 좌향(坐向)은 안대좌향(安對坐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대문은 리문진주(離門震主)로서 각 동사택(東四宅)이 되며, 부엌의 향은 건향(乾向)이다. 리문진주(離門震主)에 대한 주역(周易)의 해석을 살펴보면,

조는 양수(陽水)이고, 주는 양목(陽木)이다. 이름하여 육살택으로 화되는 발복으로 부녀자가 홀륭하다. 이름하여 생기의 안방으로 목화통명으로 대부대귀하고 공명현달하여 곧바로 서울로 가며, 처는 어질고 자식은 효도하며, 남자는 총명하고 여자는 준수하며, 삼년 대길에 다시 팔년이 길하며, 과거의 갑과에 가장 유리하고, 이름하여 “세상을 혼든 천둥소리”라고 하며, 수재가 나와 장원량이 되고, 가난한 서생이 홀연히 부귀하게 발달하는 것은 대개 이 집이며, 손의 부엌을 갖추면 다시 이롭다.

감조여문상배상생 대길대리(坎灶與門相配相生 大吉大利)
감의 부엌은 대문과는 상배되고 상생되어 대길하고 대리하다. 

분류	위치	동서사택	음양(陰陽)	오행(五行)
건물	건(乾)	동사택	양(陽)	목(木)
대문	이(離)	동사택	음(陰)	화(火)
평가		조화	조화	조화

▲ 오현택씨 가옥의 양택 분석표

조선의 출판과 글쓰기 문화

김 경 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자의 출현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상호간 의사 전달을 도모해왔다. 의사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시용한 것은 몸짓과 언어(말)였다. 그러나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 몸짓과 언어(말)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생각해낸 것이 문자였다.

그런데 문자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활자이다. 활자의 발명은 인류 문명사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열게 되었다. 활자문화는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에 힘입어 대중매체의 총아로서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인터넷 시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금속활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창안한 것이며, 최근 컴퓨터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의 집단 전달이라는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방법의 하나였다. 인쇄 기술의 혁신에 따라 대량의 인쇄물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인쇄 방식의 변화는 수요자가 증대했다는 시대 의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인쇄를 통한 정보의 대량 보급은 지적 욕구를 증가시켜 지식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한국 정신의 명석함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의 창안, 세계 최초로 발명한 아름다운 활자, 아름다운 서적의 인쇄로 이야기할 수 있다.

출판의 의미

21세기에 컴퓨터 모니터의 상당 부분을 문자보다 동영상 이 더 많이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출판문화 역시 종이에서 동영상 모니터로 넘어가고 있다. 바야흐로 화려한 영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자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에도 문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적어도 문자의 기록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기기 전까지, 문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자의 정체성과 생명력은 현란한 영상의 유희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자막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는 동시에 문자를 읽으면서 감정을 증폭시킨다. 문자가 자잘한 화면에 설명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영상처럼 현란하게 흐를 수 없지만, 문자만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문자가 없으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전할 수 없다. 영상은 생생한 현장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어떤 사건이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각적인 기록도, 배경과 배후도, 관계의 역학도, 의미와 교훈도 문자 없이는 기록될 수 없으며, 진실 역시 묻히고 만다.

문자는 영상이 전할 수 없는 이면을 이야기하고 통찰을 낳는다. 문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표현력이 아니면 그 어떤 도구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자가 사람을 움직이는

언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조선시대의 출판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이의 생산량은 출판문화를 좌우

종이(paper)의 어원은 라틴어의 파피루스(papyrus)이다. 파피루스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집트의 나일강변에 자생했던 높이 약 2.5m의 수초이다. 이것의 껍질을 물에 담가 불린 것을 가로 세로로 겹쳐 두들겨서 굵은 삼베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파피루스는 종이의 제조 방법과 다르다.

종이는 B.C 50~40년경 전한(前漢)시대에 발명되었다. 이를 150년경 후한의 채륄(蔡倫)이 품질 좋은 것으로 개발했고, 이후부터 종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제조기술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채륄이 발명했다는 종이를 ‘채후지(蔡侯紙)’라고 하였다.

초기의 종이는 제조 공정이 가장 간단했던 삼베를 원료로 한 마지(麻紙)였다. 실제로 당나라 이전의 종이는 대부분 마지였고, 지금까지 출토된 한나라의 종지도 마지였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우리나라에도 종이는 일찍부터 전래되었다. 삼국시대 각 나라에서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실과 610년 고구려의 담징이 일본에 종이 제조기술을 전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적어도 4~7세기 초 우리나라에 종이가 전래되고 제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이의 발명은 문자 생활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대나무를 비롯하여 여느 나무를 가름하게 깎아 그 표면에 글을 쓰고 실로 꿰어 엮었다. 이를 죽간(竹簡) 또는 목간(木簡)이라고 한다. ‘책(冊)’이라는 한자는 바로 글을 새긴 가름한 간찰(簡札)들을 가로로 꿰어 엮은 상형문자이다. 역시 책을 뜻하는 ‘본(本)’이라는 한자

도 ‘木 + 一’, 즉 목간을 가로로 꿰었다는 뜻이다.

나무를 얇게 쪼개어 가죽으로 연결해 사용하다 보면 간혹 끊어지기도 했고, 따라서 중간 중간 내용이 누설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종이의 출현은 이러한 각종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자의 ‘본자(本子)’, ‘책자(冊子)’, ‘권자(卷子)’라는 문자는 종이가 발명된 이후 두루마리에 글을 쓴데서 생겨난 말이다.

종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종이의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대량생산 체제가 아닌 이상, 필요한 만큼의 종이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이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범한다라니(梵漢陀羅尼) 1매이다. 재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초기의 형태인 마로 만든 종이였다. 종이의 제조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며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어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한지(韓紙)’라고 부르는 닥나무(楮:저)를 원료로 만든 종이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는 닥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닥나무에 향수를 뿌려 가며 길러서 껍질을 벗겨내고, 벗겨낸 껍질을 맷돌로 갈아서 종이를 만든다.’

신라시대에 이미 뽕나무의 일종인 닥나무를 원료로 한 종이(저지)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도 종이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의 종이는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에 다량으로 돌아나 있는 뽕나무의 일종이다. 이 껍질은 얼마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두드려서 납작하게 편 다음 햇빛에 말려 희게 한다. 가장 좋은 종이는 가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여간해서 찢어지지 않으며 두껍고 반들반들하고 상아색을 띤다. ... 어느 시대의 것이든 한국 책의 종이는 다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두 보드랍고 조직이 솜과 같다. 오래된 책에서도 종이는 꽤 얇음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세월이 주는 훼손을 잘 견디어 냈다. 사찰이나 유럽의 여러 장서 중 고려의 책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이 제조기술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전수되었다. 고려시대에 완성 단계까지 이른 제지기술은 조선시대 이후 인쇄술의 발전 및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대량 생산 단계로 들어섰다.

1415년(태종 15년)에는 국영 제지공장으로 종이 제조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지서가 설치되었고, 여기서는 주로 제지기술과 합리적 생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조지서는 현재 서울의 세검정에서 구기터널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종이의 제작과 관련하여 중앙에는 기술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조 2인이 배치되었다. 사지(司紙) 1인과 별제(別提) 4인이 기술을 관리했으며, 이밖에도 지장(紙匠) 85인과 잡역부 95인이 있었다. 지방에는 698인의 지장이 각 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우대받고 생활이 보장되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그만큼 조선의 종이 생산과 서적의 간행에 기울인 노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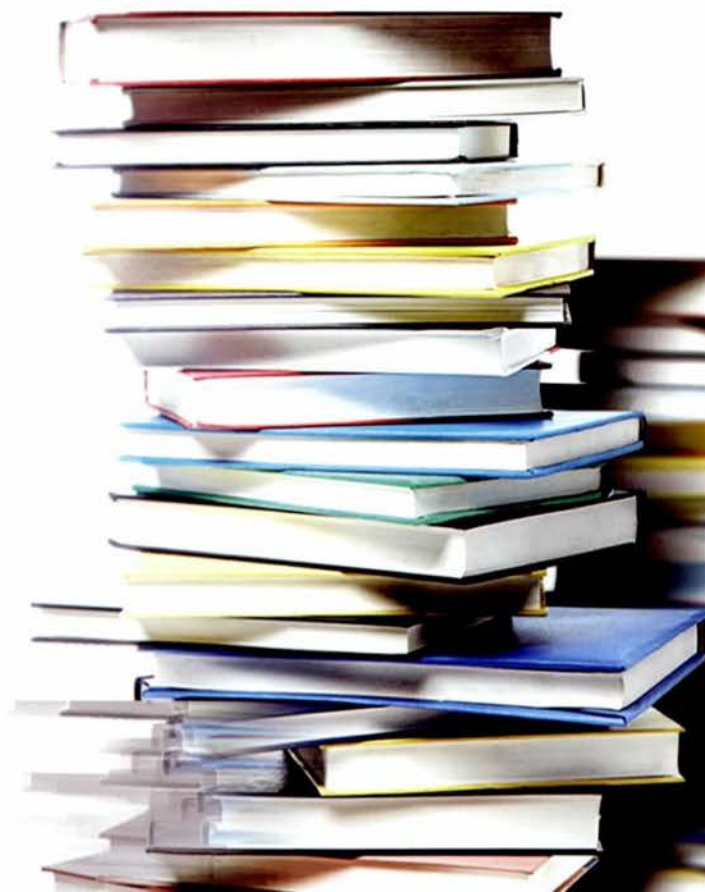
책 읽는 계절에

종이가 충분하지 못했던 만큼 전통시대에는 책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못했다. 당시에 꼭 보고 싶은 책이 있었을 때,

자기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책을 빌린 뒤 전체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책을 빌린 뒤 그대로 베끼는 방법(필사)이다. 현재 필사본이 많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유효한 방법의 하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책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 욕구에 비해 책의 보급이 많지 않았던 전통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전례 없이 출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요즘은 주변에 도서관도 많고, 인터넷 서점까지 활성화되어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책을 구해볼 수 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을에, 책 한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홍성의 전설

+

백야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은 어떤 계기로 소문난 악동의 허물을 벗었을까?

김 정 현 (동화작가 · 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 김좌진 장군 생가와 기념관 전경(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소재)

우리고장 전설을 조사하다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대의 촛불과 소금 역할을 했던 우리고장 출신 위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설이 곳곳에 전해온다.

필자는 1996년에 김좌진 장군의 고향인 갈산지역을 돌아다니며 전설 채록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마을 어른들은 김좌진 장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특히 김좌진 장군은 어려서 힘이 세고 덩치가 좋았다고 한다. 그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김좌진 장군은 어려서 짓궂은 장난을 잘 쳤다고 한다. 집에 일을 봐주는 박씨라는 하인이 있었다. 어린 김좌진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마당에 서있는 박씨의 상투 사이로 두 손가락을 집어넣고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한다. 하인 박씨는 어린 김좌진이 손가락으로 들어 올릴 때마다 바둥바둥 허공으로 팔려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집에서 집을 지을 때 이야기다. 김좌진은 어느 날 목수들이 집짓는 모습을 재미있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목수들이 망치로 힘들게 땅땅 쳐서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목수에게서 대못과 망치를 빼앗았다. 망치를 내동댕이치고는 대못을 엄지손가락으로 꼭 밀어서 나무에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을에 추수한 벼를 창고에 쌓을 때였다. 창고 앞에는 수백석의 벼가마가 쌓여있었고 하인들은 어렵게 창고에 운반하여 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린 김좌진은 하인들을 옆으로 비켜나도록 했다.

김좌진은 창고 밖에서 벼가마를 가볍게 안쪽으로 던져주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가벼운 베개를 집어던지는 모습이었다. 하인들은 창고 안쪽에서 김좌진이 벼가마를 던져줄 때마다 받아서 쌓기만 하면 되었다는 이야기다.





▲ 장군나무(김좌진이 어린 시절 서당에 다닐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나무라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소재)

네 번째는 집 앞에 커다란 들돌이 있었다고 한다. 동네 힘 좋은 청년들도 들돌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어린 김좌진은 들돌을 번쩍 들어서 머리 뒤로 내던지곤 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싸움 애기다. 힘에서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김좌진은 이웃마을에 힘센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웃마을로 찾아가 이런저런 억지핑계를 대어 기어이 한판 싸움을 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악동이었다.

김좌진은 고집도 대단했다고 한다. 친구들과 절에 놀러갔는데 대웅전에 있는 나한상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처럼 느꼈다. 화가 나서 나한상을 들어다 밖에 내던졌다.

나한상이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땅벌 집이었다. 깜짝 놀란 땅벌들이 떼로 몰려나와서 김좌진을 사정없이 쏘아댔다. 김좌진은 땅벌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더욱 화가 났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땅벌들의 공격을 받으며 벌집을 모두 파헤쳐 없앴다고 한다.

이처럼 고집도 대단하고 힘도 세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을 갖고 있던 김좌진은 거칠 것이 없었다. 어린 김좌진의 악동기질을 아무도 말리거나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처럼 힘이라면 자신 있고 싸움에서 저본 적이 없는 김좌진도,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번 패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던 김좌진이 싸움에서 패한 이후로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김좌진이 싸움에서 패하던 이야기가 갈산지방에 재미있는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소년 김좌진이 갈산에서 해미방면으로 집안의 심부름을 갈 때였다. 갈산에서 해미방향으로 가려면 높은 삼준산을 넘어야 했다.

김좌진이 삼준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앞에는 흰 베옷을 입은 상주가 한명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때마침 마을 청년들 대여섯 명이 고갯마루에 앉아 있었다. 삼준산에서 나무를 한 짐씩 지고 내려오다가 잠깐 쉬는 중이었다. 젊은 청년들은 지나가는 상주를 바라보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상주양반. 잠깐 좀 봅시다.”

동네 청년들은 험상궂은 얼굴표정을 지으며 상주를 불러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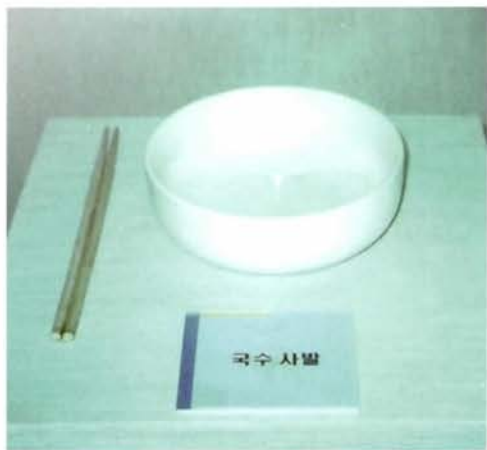
“저, 저 말입니까? 왜 그러시지요?”

상주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건넌 걸음을 멈춰 섰다.

“이보시오, 상주양반. 남의 동네를 지나가는데 건방지게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소?”

나무꾼들은 생트집을 잡으며 눈을 부라렸다.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 국수사발(김좌진이 결성면 성호리 김참봉댁에 독립자금을 모금하러 다니면서 국수를 대접받던 사발이라고 한다. 김참봉댁 소재)



▲ 김좌진 장군 추모식(과거 생가에서 거행했던 추모식 장면. 현재는 사당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겁에 질린 상주가 몸을 웅크리고 대꾸했다.

“이보시오, 남의 동네를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할 것 아니요.”

“통행세라니요?”

“어허, 상주양반은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단 말ियो? 통행세가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यो?”

나무꾼들은 자기 마을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아, 예,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만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상주는 자신의 옷 주머니를 모두 뒤집어 보였다.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그냥 보내달라고 통사정했다.

“어허, 우리가 당신을 언제 보았다고 그냥 보낸단 말ियो? 통행세를 못 낸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소.”

“그게 뭔데요?” 상주가 물었다.

“그게 뭔지 가르쳐 주겠소, 우리에게 매라도 맞고 가시오.”

동네 청년들은 벌떡 일어나서 상주에게 다가갔다. 상주를 에워

싸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몰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소년 김좌진이 뒤따라가면서 모두 듣고 보았다. 김좌진은 악동기질이 있으면서도 옳지 못한 것은 못 보는 성격이었다. 동네 청년들 앞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이게 뭐하는 짓들이오! 상주라면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인데, 위로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상주님을 그냥 보내주시오!”

김좌진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리소리 쳤다. 상주에게 몰매를 때리던 청년들이 멈칫하며 김좌진을 바라보았다. 아직 나이도 어려보이는 앳된 소년이었다. 어린소년이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것이 건방져 보였다.

“이거 어린것이 어디에 끼어드는 거냐? 그렇다면 네가 대신 맞고 갈 테냐?”

청년들이 김좌진에게 겁을 주며 소리쳤다.

“그래요? 그럼 내가 대신 상대해 줄 테니 어서 빨리 상주님을 보내주시오.”

김좌진도 맞장구를 쳤다.

“오호라, 요런 맹랑한 어린것을 보았나? 맞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면 얼마든지 들어주매!”

청년들은 김좌진에게 우르르 덤벼들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김좌진의 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무거운 벋가마도 가벼운 베개처럼 내던지는 김좌진이었다.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한명씩 붙잡아서 이리저리 메다꽂았다.

그 시간이 불과 십여 분도 채 되지 않았다. 젊은 청년들은 김좌진의 힘 앞에서 찢찢매며 모두 줄행랑을 치기 바빴다. 김좌진은 주먹을 툭툭 털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주를 찾아보았지만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으응? 이 양반 좀 보게나.”

김좌진은 주변을 살펴보다 이맛살을 찌푸렸다. 상



▲ 김좌진 장군 동상(홍성군 홍성읍 장군상오거리 소재)



▲ 청산리 항일대첩 승전비(중국 흑룡강성 청산리 계곡 소재)

주가 고개 아래쪽으로 달리다시피 걸어가고 있었다.

김좌진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다. 위험에 처한 상주를 구해주었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혼자서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마저 들었다. 김좌진은 온 힘을 다해 고개 아래로 달려갔다.

“상주님! 거기 좀 잠깐만 서 계시지요. 할 말이 있습니다.”

상주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가던 걸음만 급하게 걷고 있었다. 김좌진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상주 앞을 가로막았다.

“상주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상주님을 위험에서 구해드렸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혼자서만 살겠다고 도망가시다니요?”

김좌진은 상주를 막아서고 얼굴을 붉히며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주는 계면쩍은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이구, 이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급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요. 나이 드신 어른이 그 정도 상식도 없단 말입니까?”

김좌진은 아직까지도 서운한 감정이 덜 풀렸다. 서운한 내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허허, 나도 힘이 없어서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몇 대 맞아 주고 가려던 중이었다요.”

순간, 김좌진은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다.

“뭐라구요? 힘이 있는데도 맞았던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어린 김좌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요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어린 김좌진은 배알이 뒤흔렸다. 이제는 상주에게 조롱당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상주님이 그렇게 힘이 좋다면 저하고 한판 붙읍시다.”

“허허, 힘자랑을 그렇게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에?”

상주는 아예 훈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좌진은 더욱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제 갈 길이 바쁘니 어서 빨리 그냥 가게 해주세요.”

“안됩니다! 저를 때려눕히고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전에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허허, 이거 참…….”

상주는 혀를 꼰꼰 차며 서 있었다. 김좌진을 이리저리 달래면서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김좌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상주와 김좌진은 한참동안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상주님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판 붙어보자니까요?”

“좋습니다.”

상주는 김좌진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상주의 대답에 김좌진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상주님과 치고받는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상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김좌진은 잠깐 동안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



▲ 청산리 계곡



▲ 김좌진 장군 흉상
(홍성군 홍주읍성 주변 공원 소재)

올렸다.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려쳐서 땅속에 많이 들어가는 쪽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김좌진은 자신의 생각을 상주에게 말했다. 상주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상주와 김좌진의 싸움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려치는 것으로 쉽게 결정되었다.

먼저 김좌진이 시작했다. 김좌진은 팔에 힘을 주고 번쩍 들어 올렸다. 돌처럼 단단한 주먹에 온 힘을 집중하여 땅바닥을 향해서 힘껏 내려쳤다.

“이얏!”

“팩!”

김좌진의 함성 소리가 삼준산을 찌렁찌렁 울렸다. 김좌진의 주먹이 땅바닥 속으로 폭 파묻히며 ‘팩’ 소리가 났다.

김좌진의 주먹 힘은 참으로 대단했다. 단단하게 다져진 땅바닥을 망치로 파헤치듯 작은 구덩이가 생겨난 것이다. 돌덩이 같은 주먹을 한대 맞으면 누구라도 뼈가 으스러질 힘이었다.

김좌진은 어깨를 으스대며 주먹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상주를 바라보며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웃어보였다.

이번에는 상주 차례였다. 상주는 김좌진을 힐끗 한번 바라보더니 주먹을 힘없이 허공으로 들었다. 주먹에 힘을 주는 둥 마는 둥 가벼운 동작으로 땅바닥을 내려쳤다. 어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주의 주먹은 땅속에 폭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았다. 주먹은 물론이고 팔뚝까지 땅속으로 깊이 파묻힌 것이었다. 상주가 주먹을 빼내자 패인 자리가 어둡고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김좌진은 휘둥그런 눈으로 깊게 패인 땅속을 내려다보았다.

“으으…….”

김좌진은 할 말을 잃었다. 입에서는 나직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힘내기에서 패배한 김좌진이었다.

“아…….”

김좌진은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상주님, 제가 졌습니다.”

김좌진은 머리를 들고 상주를 쳐다보았다.

“으응?”

김좌진은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옆에 있었던 상주가 없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상주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상주님이 또 어디로 갔지? 상주님. 상주님…….”

김좌진은 정신없이 상주를 찾아보았다. 삼준산 고개 주변 여기저기를 모두 뛰어다녀 보았지만 상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한참 뛰어다니던 김좌진은 길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 상주님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삼준산 산신령님이 상주로 변해서 나를 가르쳐주었구나.’

어린 김좌진은 영리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 삼준산 산신령님이 상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좌진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뒤돌아보았다. 자신의 힘과 집안의 배경만 믿고 방자하고 교만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검술을 배운다고 남의 농작물에 흙집을 내놓았던 일, 이웃마을 힘센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싸움을 벌였던 일, 길가에 매어놓은 송아지를 번쩍 들어서 땅바닥에 메다꽂은 일, 아이들을 선동하여 서당 선생님을 내쫓은 일 등 …….

김좌진은 서둘러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방안에 틀어박혀서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 삼준산 산신령님이 상주로 변장해서 자신을 깨우쳐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삼준산 산신령은 어린 김좌진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의 배경과 힘만 믿고 악동으로 소문난 김좌진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저 어린소년을 잘만 가르치고 다듬어주면 미래에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재목감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멋대로 성장한다면 동네 폭력배로 성장하기 십상이었다.

삼준산 산신령은 그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김좌진이 삼준산 고개를 넘어갈 때에 상주로 변하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행동을 깨우쳐준 것이었다.

이상은 갈산지방에 전해오는 김좌진 장군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전설이다. 비록 전설이 재미와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허구적이고 비약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이야기를 형상화시킨 내용들이 많다.

어린 김좌진의 악동기질을 삼준산 산신령이 깨우쳐주었다는 전설 속에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김좌진이 힘이 썩고 악동 같은 행동을 많이 했으며, 악동기질을 잘 가르치고 선도한 인물이 실제로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설 속에서 산신령이 김좌진을 깨우쳐주었던 것처럼, 실제 현실 속에서 김좌진을 잘 이끌어주고 깨우쳐준 인물은 누구일까?

김좌진과 관련한 많은 기록에서 전설 속의 산신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은 두세 명 정도 압축된다. 김좌진을 성숙한 사람으로 가르쳐준 인물은 서당에서 김좌진을 가르쳤던 김광호 선생이다.

그리고 어린 김좌진에게 개화된 사상과 미래 독립운동의 불씨를 심어준 사람은 김석범이라는 개화된 젊은이였다. 또한 서당선생 김광호에 이어서 가르침을 받았던 김동의 선생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전해온다.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남당학 학술총서』 제4집에는 어린 김좌진을 깨우친 실제인물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민족의식과 국권회복」(민황기·손세재, 2017)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김좌진 장군 구거지
(독립운동을 이끌며 순국 전까지 살던 곳,
중국 흑룡강성 산시진 소재)

김좌진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엉뚱한 생각과 예기치 않은 행동을 자주 했고, 무슨 일을 하던 거침이 없었으며, 승부욕이 매우 강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김좌진은 타고난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사내다움'과 '호협'을 지향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다. 이런 품성은 다듬어지지 않을 경우 반사회적·폭력적·소영웅주의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김좌진의 의식이 각성된 것은 9세 무렵에 만난 김광호(金光浩)의 가르침 덕분이었던 것 같다. 당시 김좌진은 '선생불신임'을 주도하여 고을 전역에 '악동(惡童)'으로 소문이 나서 동네 서당에는 훈장으로 오려는 자가 없었다.

이때의 서당 훈장이 송노암(宋老岩)인데, 그가 학생을 지도하는 스타일은 실질보다 형식을 강조하고 현학적이며 교수방법도 매우 권위적이었던 것 같다. 글을 읽다 막히면 우암 송시열이 자기 조상임을 내세우며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학도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것이 김좌진에게 포착되어,



▲ 김좌진 장군 순국장소
(금성정미소, 중국 흑룡강성 산시진 소재)

선생불신임과 수업거부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훈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9세(1898년) 무렵에 새로운 훈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광호이다.

그는 광천 출신으로 학식과 덕망도 높았지만 보학(譜學)과 『사기(史記)』에 밝았고 국사(國史)를 보는 눈과 시국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교수법은 요즘 말로 하면 '맞춤형 교육'이었던 것 같다. 학동의 적성과 흥미를 살펴 그에 맞게 교수법을 달리 했던 것이다.

예컨대 김좌진에게 적용한 교수법을 보면, 부친 형규와 문중에서 회자되던 김옥균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 그의 인물과 행적·개혁사상의 사회정치적 가치 등을 들려주면서 수구 세도정치 of 폐해를 지적하는가 하면, 인조반정 때 순절한 12대조 김상용의 행적을 거론한 다음, 국난기에 갖춰야 할 자세라든가 의리·기개 등을 가르쳐주고, 『사기』(『통감』)에 수록된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내다움과 호협의 참된 면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때 김좌진은 『통감절요』를 3개월 만에 독파했다고 한다. 남보

다 먼저 서당에 갔고 가장 늦게 나왔으며 병정놀이를 하는 시간보다 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김광호의 교수법은 김좌진에게 의식 계몽과 함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주었던 것 같다. 이때부터 김좌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적·합리적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서서히 철이 들어갔으며 자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국가의식·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료 중에는 사내다움과 호협을 지향했다는 것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 바탕을 마련해준 것이 김광호였고, 김광호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다.

김광호가 김좌진에게 의식의 개안(開眼)과 진정한 사내다움의 길을 깨우쳐주었다면, 김석범(金錫範)은 김광호가 열어놓은 의식 안에 자아의 지향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석범은 갈산 출신으로 김광호와 숙질간이었다고 한다.

김좌진이 김석범을 처음 대면했을 때, 단발머리·양복·구두를 갖춘 모습에서 큰 호기심을 가졌고, 이어 서당선생 김광호와 함께 시국의 흐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양선(異樣船)의 출몰에서부터 각종 불평등 조약의 체결·수구적 세도정치·김옥균과 갑신정변·갑오농민전쟁·을미사변·청일전쟁·삼국간섭·아관파천·독립협회·일본의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김석범의 시국관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은 김광호가 열어놓은 의식 속에서 막연하게 꿈틀대고 있던 공상적·추상적 단계의 자아를 현실적·구체적 자아로 변화시켜, 이 시대의 주요 문제였던 민족 모순과 국권수호의 절박함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김석범은 오랫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며 독립협회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홍성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개화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김좌진의 사내다움과 호협정신을 자극히 사랑해서 수시로 시국의 동향과 세계정세 및 인접국의 동향에 대해 들려주었다고 한다. 김좌진의 사내다움과 호협을 동경하는 마음이 국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김석범을 만나고부터라고 해도 좋다.

둘의 관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망 이후 화폐위조 군자금 모집 활동에까지 이어질 정도로 매우 끈끈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김석범은 김좌진에게 정신적 스승이요 구도의 도반(道伴)이었던 것이다.

한편, 김좌진은 12~3세 되던 해(1901~2년)부터 김광호가 개인적인 일로 사숙을 그만두자 갈산면 부기리에 있는 김동익(金東益)의 부춘서당에서 학습을 이어갔다고 한다. 당시 김동익은 유교의 교학과 예법에 밝았다고 하는데, 학동들에게 성균관의 서동진(書童進仕)들의 예법에 따라 서로 응대하도록 지도했다고 한다. 김좌진도 이때 유교의 예법과 범절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좌진의 시풍(詩風)이나 조선시대 서당의 교육편제로 볼 때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중용』에서부터 시작하여 1년 만에 『논어』, 『맹자』, 『대학』, 등을 독파하고 『시전』까지 읽었다고 한다.

혼담을 주고받을 때 ‘악동이란 소문이 자자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대해보니 소문만큼 과장된 것도 없다’는 말을 그의 장인이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좌진의 거친 행동이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 여럿 있을 것이다.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가장 좋은 만남일 것이다. 또한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부모 못지않은 좋은 만남일 것이다. 이외에도,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좋은 만남일 것이다.

김좌진의 어린 시절 악동기질을 순화시키고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스승과 개화된 이웃을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 김좌진 장군 묘소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소재)

이처럼 훌륭한 인물들과의 만남은 김좌진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김좌진이 소문난 악동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훌륭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바탕에는 훌륭한 스승과 좋은 이웃이 있었던 것이다. 

기행문

역사책 속을 거닐다

정 명 순 (물앙금시문학회 회장 · 시인)



▲ 탐방 코스



▲ 요시노가리 입구



▲ 요시노가리 집터

01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I

한국과 일본, 할 말도 많고 못하는 말도 많은 사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애매하게 정의되는 사이.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사이. 어쩌면 그런 찝찝한 감정이 그동안 일본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았는지도 모른다. 이번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생각은 접기로 했다. 지식은 가지고 가 되 감정은 접고 차분하게 흔적을 돌아보기로 했다. 유물과 유적이 증언하는 사실을 직접 보고 느끼기로 했다.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평화로운 공존이 따라준다면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이번 탐방은 한민족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으로 일반 여행과는 매우 다르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큐슈, 그래서 우리의 선조가 일찍부터 정착해서 살았던 땅, 그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간다. 후쿠오카에서 2박,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나िका이를 페리호로 1박, 오사카에서 2박, 총 5박 6일의 일정. 역사적으로는 신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다.

탐방 순서는 큐슈의 다자이후, 후나야마 고분, 나고야 성터, 이삼평 도예지와 도잔신사, 요시노가리 유적을 돌아보고 혼슈로 이동하여 아카마 신궁과 청일강화기념관, 세토나िका이를 지나 나라의 도다이지, 오사카의 오사카성, 아스카의 아스카테라, 다카마쓰 고분, 교토의 고류지와 니조성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지역별로 편성된 일정이었지만 시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일본의 야요이시대,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는 청동기시대가 시작된다. 당시 한반도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어 철기도 함께 전래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의 농경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초보적인 소국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반도와 가까운 큐슈지역에 먼저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 금동관



▲ 청동거울



▲ 금동신발



▲ 대불전 초석

기원후 3세기까지 약 600년간 마을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시노가리 유적이다. 복원해 놓은 모양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백제가 생각나는, 큐슈의 '후나야마 고분'

3세기 말 여러 개의 소국으로 나누어졌던 일본은 삼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4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체제가 정비되고 고대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로 가는 길목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에서는 5세기 무렵의 백제 흔적이 발견된다. 고분에서 집모양의 돌로 된 관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청동거울, 금동제 관, 금동제 신발 등 모두 92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거울, 금동관, 금동신발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비슷하여 전시실에 들어가는 순간 공주박물관에 온 듯 했다. 금귀고리 역시 삼국 초기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아서 한반도인의 정착을 증언해 준다.

삼국의 영향을 받은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

8세기에 이르러 일본은 천황제가 확립된다. 그러나 유력한 호족간의 투쟁이 이어지고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도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혼란해지자 민심 수습, 왕실의 권위,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위해 도다이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건물은 여러 차례 다시 지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분위기가 강해졌다. 그러나 대불전으로 들어가니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뿌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도다이지 창건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일본 조정에서도 도다이지 경내에 신사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표



▲ 대불전

현했다. 원래 신사의 이름은 한국(韓國) 신사였는데 언제부턴가 신국(辛國) 신사(가라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진실이 바뀔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실도 다르게 써지지 않을까.



▲ 가라쿠니 신사

대불전 뒤편 일본 황실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쇼소인(정창원)에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의 고대유물 9,000여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라의 금, 먹, 종 등이 있으며, 755년경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농촌사회 구조를 기록한 신라장적이 있어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도다이지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거닐고 있는 사슴들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울타리도 없이 사람과 사슴이 섞여 돌아다니고 있었다. 동물과도 경계를 허무는데, 하물며 사람끼리, 하물며 이웃끼리…….



▲ 아스카테라 입구

백제 사찰을 모델로 한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의 아스카테라(飛鳥寺)



▲ 아스카대불

아스카테라는 588년 백제로부터 부처의 사리를 받아 596년에 창건된 일본 최초의 사찰이다. 백제의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불당과 탑을 축조했는데, 초기에는 대규모였으나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는 에도 시대에 재건된 본당만 남아있다. 본당의 석가여래상은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아스카대불'이라고 불리는데, 얼굴의 일부, 왼쪽 귀부분, 오른손 손가락 3개만 원래의 것이라고 한다.

일본어로 사찰(寺)은 '지'나 '테라'로 읽는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스카지'가 아닌 '아스카테라'로 불리고 있었다. 최근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는 아스카테라의 원형이 백제의 왕흥사(王興寺)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왕흥사는 6~7세기에 백제 수도였던 부여에 있던 절로 유물을 분석한 결과 두 사찰간의 관계가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 다카마쓰 고분

고구려 벽화가 살아 숨쉬는,
아스카의 다카마쓰(高松) 고분



▲ 다카마쓰 고분 벽화

다카마쓰 고분은 아스카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흔적이다. 부장 품은 도굴되었지만, 고분의 천장과 벽에 그려진 벽화가 고구려 미술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일본의 벽화는 주술적 성격을 띤 단순한 형태만 몇 개 존재하는데, 이 고분에서는 사신도, 여자와 남자들의 모습 등이 남아있어 발굴 당시 일본 열도를 흥분시켰다고 한다. 벽화들은 배치된 방향이나 그림의 표현방식이 고구려와 매우 흡사하여 비전문가인 나의 눈으로 보아도 쉽게 고구려 문화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중국 영향이라고 주장하여 결론 없이 대립 중이라고 한다.

신라의 숨결이 흐르는, 교토의 고류지(廣隆寺)

큐슈 지역으로 백제인들이 주로 진출한데 비해, 교토 지역에는 신라인의 흔적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603년에 건립된 고류지

로 호류지와 함께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사찰이다. 여러 차례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데, 특히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일본이 국보 1호로 지정할 만큼 가장 자랑하는 유물이다.

우리에게 이 불상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을 빼다 박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해진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불상의 재료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의 한 학생이 불상을 안으려다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는데, 복원 과정에서 나무의 재질이 적송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본에서 제조된 목조상은 대부분 녹나무로 만들어졌고, 일본에는 적송이 없다는 사실은 신라 제작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륵보살반가사유상 / 정명순

존재 속으로 들어간

잔잔하고 깊은 사유

쫄쫄거리는 침묵으로

온 우주가 입을 다무네

겨우 한 생인 걸

겨우 한 생뿐인 걸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를, 우리를

세상을 보는 거라고

사유 속에 가을은 붉어가고

낙엽 사이로 사유는 깊어지고

투명하게 맑아지고

▲ 반가사유상(왼쪽-한국, 오른쪽-일본)



▲ 호류지 금당(왼쪽)과 5층 목탑(오른쪽)



▲ 호류지 백제관음

삼국문화의 종합 선물, 나라의 호류지(法隆寺)

고대 일본의 아스카 문화, 그 중심지가 바로 호류지다. 삼국과 중국의 불교예술이 전래되어 '동아시아 미술의 보고'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호류지 5층 목탑이 대표적이다.

전쟁 피해를 많이 겪은 우리나라는 목조건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반면, 일본에는 우리 선조의 손길이 닿은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아스카 시대의 사찰 중에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호류지는 비교적 고대의 사찰을 그대로 중수하여 가치가 매우 높다. 백제계 또는 백제계의 후손에 의해 지어져 우리 문화를 복원할 때 참고해야 할 상황이다.

호류지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금당의 벽화이다. 고구려의 담



▲ 다자이후터 전경

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1949년 수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어 지금은 사진을 기초로 재현해 놓고 있었다.

호류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유물은 백제관음이었다. 2m가 넘는 목조관음상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은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다. 7세기 초 백제 장인의 솜씨로 구다라(백제)라는 명칭이 붙어있을 정도니 두말할 필요도 없다.

멸망 이후 일본으로 간 백제인이 세운, 큐슈의 다자이후(大宰府)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백제에 원군을 파견한다. 하지만 백촌강(동진강 또는 금강 하구)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다. 백제인들은 패전한 일본 수군과 함께 일본으로 향하는데, 신라가 다시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방어 거점을 만들었다. 백제식 토성과 산성, 일본에서는 이를 ‘조선식 산성’이라고 부른다. 성안에 있는 다자이후는 큐슈 지역을 다스리고 외교를 담당하며 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

큐슈는 일본 열도 중 한국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산에서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거의 한반도 문화권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데 지명에서도 태백산, 묘향산, 고조산, 구지봉, 당진 등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름들이 있다.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 다자이후 초석

나의 삶 나의 예술

+

송복 입은 서예 서각 화가 이달세씨

글·조 성 미

(홍성문화 편집위원장)



두 번의 가출, 한 번의 출가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길

서예와 서각작품 활동하며 인생의 사명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경 새겨 문화재로 남기고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쯤 읽었을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안주하지 않는 삶, 새로운 무엇을 꿈꾸는 자라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을 깨야하는 순간이 온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알”을 깨트렸는가?

여기 자신을 옥죄는 비좁은 알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한 소년이 있다.

열다섯, 아직 앓던 소년은 천안역에서 서울행을 버리고 남쪽으로 가는 군객열차에 올라탔다. 무작정이었다. 당시 군객열차는 군인 우선 열차였지만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었다.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오히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용산-부산 간 완행열차다.

남쪽 어디 목적지가 있을 리 없다. 서울로 가면 친인척이라도 있고 실오라기 같은 인연의 끈이라도 붙잡고 어찌어찌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쯤 모를 리 없지만 소년은 이마저도 버리고 사고무친의 남행을 택했다.



첫 번째 가솔이다. 그것은 끝도 없이 빠져드는 절망의 늪에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이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8남매를 건사하느라 여력이 닿지 않는 부모님, 함께 놀고 배우던 친구들도, 향학열을 자극하고 꿈을 심어주시던 선생님도 이 캄캄한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소년은 알았다. 소년은 자신을 옥죄는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었다.

소년은 공부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해방 무렵 태어나 6.25전쟁을 겪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역사의 파랑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던 시절 어렵게 홍성초등학교(49회)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꿈도 못 꾸는 처지였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고, 그림도 곧잘 그려 소년의 그림은 항상 제일 잘 보이는 복도에 게시 되었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학교 바깥으로 밀려난 소년의 향학열은 더욱 불타올랐다.

당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건중학교가 개설되었다. 홍성지역에는 홍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재건중학교가 야간과정으로 개설돼 소년은 이곳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 꼬박 2년을 겨울이면 시린 손을 비벼가며 늦은 밤까지 공부했다. 공부를 마치면 밤길을 걸어 고암리 집에까지 걸어 돌아오는 귀가길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홍성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인 강공택 선생님은 소년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봐준 잊지 못할 은사였다. 재건중학교에서는 한상갑 선생님이 있었다.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자, 전기, 통신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늘 강조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소년은 재건중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광천의 광흥중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중학과정을 마쳤다. 졸업을 앞두고 졸업사진까지 찍었지만 소년에게는 졸업장이 수여되지 않았다. 등록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년은 절망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열차 안에서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회의가 느껴졌다. 이날 차 안에서 소년을 유심히 보던 한사람이 있었다. 이 남자는 소년에게 왜 우는지, 혼자 어딜 가는지 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자신은 대구 중앙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함께 가서 가게에서 심부름도 하고 일을 도와주면 밥은 먹여줄 수 있노라고 했다. 소년은 대구역에서 내려올 때 망망대해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던 소년의 눈에 맞은편 건물 바람벽에 붙어있는 글귀가 보였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다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로 시작되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시였다.

시구는 캄캄한 어둠뿐이었던 소년의 마음에 한줄기 빛처럼 들어왔다. 소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푸시킨의 시구를 곱씹어 외워보았다. 어느새 마음을 다잡아 기차 안에서 만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살아보기로 한 거였다. “슬픔을 참고 견디면 기쁨이 온다”하지 않는가?

소년은 착실하게 일을 잘했고 주인의 눈에 들었다. 주인은 제법 똑똑한 소년에게 학업이 중단된 게 안타깝다면서 전기·통신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해 주었다. 비록 졸업장은 없지만 중학과정을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영어를 배울 수 있었





던 게 기술교육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배움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기술교육 후에는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가며 돈을 벌 수 있었다. 68년 군입대 전까지 그는 대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고향의 아버지에게 논 네 마지기를 사줄 수 있었다.

수덕사 대웅전을 돌아 정혜사로 오르는 길목에 만공스님 불탑과 미륵불이 있다. 어느 겨울날 한 남자가 미륵불 앞에서 백팔배를 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남자는 오래도록 쉬지 않고 절을 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미륵불 옆 선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남자를 선방으로 불렀다.

스님은 벽장 속에서 술잎차 한잔을 내주었다. 남자는 단숨에 그 차를 받아 마시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캄캄한 밤이었고 스님은 여전히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서야 스님은 어디 사는 누구이고,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남자는 스님에게 엎드려 행자 승으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노스님은 남자에게 크게 꾸짖으며 당장 산을 내려가라 했다. 속세에 어린 자식과 아내를 두고 혼자서만 도망쳐와 중이 되겠다는 것은 다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니 돌아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부처님은 산중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네가 사는 속세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네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니 행자 승이 되고 안 되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가르침도 주셨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때와도 늦지 않는다는 스님의 설득에 남자는 산을 내려왔다. 두 번째 가출인 셈이다.

특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한사람의 인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을 울리는 곡진한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고, 드라마틱한 반전 하나쯤 왜 없겠는가? 한사람이 한 시대와 만나 씨줄과 날줄처럼 엮이면서 직조해내는 인생의 파노라마는 저마다 다른 색깔과 무늬로 변주되기에 그 고유성만으로도 값지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반전을 안겨준 한편의 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줄줄 외워주는 이달세씨(72세)의 성장기 역시 꿈 많은 한 소년이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며 위기와 기회를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빠져들게 한다.

소년기를 지난 후에도 이달세씨의 방향은 끝나지 않았을까? 제대 후 전기·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파사를 운영하며 고향 홍성에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였지만 어린 자녀와 아내를 두고 출가를 결심한 적도 있다고 했다. 수덕사 노스님을 만나 크게 꾸지람을 듣고 산을 나와 가장으로서 충실한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한다.

그는 생계를 위해 자영업자로 살아가면서도 장사하는 일이 웬지 자신에게 맞지 않았기에 다른 무엇을 찾아 다녔다. 그 무렵 알게 된 용화사 스님에게 서예와 서각에 입문한다. 나이 서른 무렵이니 40여 년 전 일이다.

당시 홍성에는 구 세무서 앞에 딱 하나 서예학원이 있었다. 이달세씨는 서예학원에서 한문서예와 한글서예를 꾸준히 익혔고, 예산의 한문서예에 능한 도곡 홍우길 선생님에게 한문서예를 배웠다.

홍성의 유일했던 우경서예학원이 문을 닫게 되자 홍성의 서예인들은 당시 서울에서 국전 심사위원과 초대작가로 활동하던 갈산 출신의 장강 변수길 선생을 홍성으로 모셔온다. 그때 장강 선생님께 서예를 같이 배운 이들이 지금까지 홍성군서각협회 활동을 같이하는 김종일씨, 박창진씨 이창희씨 등이다. 이씨는 서예에 머물지 않고 문인화와 서각을 두루 섭렵한다.

그의 나이 어느덧 환갑을 넘겼을 때이다. 자녀도 이미 결혼하여 분가시켰다. 수덕사 노스님과 약속대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이만하면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 염원이던 출가를 결

심한다. 순천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강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선암사에서 은사스님인 보혜 청봉스님으로부터 “지법(智法)”이라는 법명을 받아 다시 태어난 그는 2007년 6월 생가인 홍성읍 고암리 117번지에 사찰 <보광사>를 창건했다.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스님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의 서각 작업은 변함없다. 보광사 앞뜰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여 후학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다니는 윤만호씨, 양봉업을 하는 김광수씨 등이 오래전부터 그에게 서각을 배우고 있다.

이달세씨는 현재 대한민국예술총연합회 공예분과 심사위원이면서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서각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 동아예술대전 문인화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각대전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 경기남부서예대전 문인화 초대작가, 충남도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남은 생애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자 승려의 길로 들어섰으니 불경을 서각으로 새겨보고 싶다고 작가는 말했다. 훗날 후손들에게까지 소중한 문화재로 물려줄 만한 그런 명작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서각은 한 획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번 칼날이 잘못 나가면 작품 전체를 버려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불심을 닦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버린 칼끝으로 새겨나가는 지법스님의 서각 불경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된다. 



비밀

황 정 옥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 시인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모방(模倣)을 인정하기로 약속하는 것

처음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남의 생을 훑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것처럼
시침을 뚫! 떼며
삶을 살찌워가는 것이다



| **프로필** | 충남 홍성 출생 / 시인 / 제13대 (사)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아가페 문학회 회원 / 제26대 (사)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원회 위원
충남문협 이사, 한국공간시인협회 이사 / 홍성군립합창단 단원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 / 시집 『여백의 창가엔 그리움이 자란다』
제17회 순수문학 본상 수상

시 & 수필
+
가을 풀씨에게

가을 풀씨에게

현 자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인

참으로 수고 많았네
무차별 제초제의 폭압과 예초기의 날선 칼날
하루하루 목숨 아슬 했던 삶

돌개바람 한 줄기에 목이 꺾이고
짐승들의 발굽에 무참히 으깨지던
하찮은 삶

가장자리로 떠밀리고 무시로 뽑히면서
눈총 받던 변두리의 아픔을 딛고

성큼 자라 돌아온
저 야문 눈빛들은 아름답다

이제 그 누가
그대들 장엄한 생생의 행진을 막아 설 수 있을까

이른 아침 농부의 젖은 장화에 달라붙고
나래 빠른 작은 새의 깃털에 엉키고

때로는 갈기를 세워
갈바람의 등허리에 올라타서

이릉거리는 들녘의 화톳불, 훌쩍 뛰어넘는
생의 질주疾走

보란 듯이
저, 푸른 피안의 가을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는 가을 풀씨들



| 프로필 | 『오늘의 문학』 신인작품상(1995년) / 『시와 표현』 신인상(2013년)으로 등단
충남 예술인 공로상(2004년) / 제8대 (사)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역임.
충남문협 이사 역임 / 홍주문학회(8대) 역임 / 시집 『화요일 오후』,
『그래도 풀씨를 날리며』 / (현) 시와 표현, 홍주문학회, 충남문인협회 회원,
갈산중 교사

조그만 행복

이 상 헌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은 자기가 느끼기에 달려있다. 옆에 있으면서도 또 현재 누리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며,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그만 행복은 자신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에 있을 때 생각이 불현듯 난다.

얼마 안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혼자 1년 동안 중국 대학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강의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처음엔 혼자만의 외국생활을 그리며 들뜬 마음으로 왔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전번에도 텐진에서 4년여의 가족과의 생활을 할 때는 아내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서히 짐을 꾸리고 귀국 준비를 해야 한다.

해방 된 직후 징용 등으로 일본에 있다가 조국으로 귀국하려 보따리를 싸며 준비를 하고 귀국선의 날짜를 기다리는 심정이랄까? 비유를 너무 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심정도 그 귀국선 선편을 기다리는 사람과 비슷하다.

방학이 다가오고, 티베트 여행계획은 중국인들과 여행은 안 되고 한국 사람끼리 독립된 팀을 만들어 가이드를 섭외해야만 하여 비용이 인민폐 1만원(한화 약 200만원)이 훨씬 넘어 포기하고 내몽고 초원으로 한 1주일 여행계획을 다시 세웠다.

이제 쌀도 떨어져 가는데 얼마만큼 더 사야할까? 라면은 아직도 한 상자 정도 남아서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다 해치울 수 있을까? 한번 학생들 불러 김치하고 라면 대청소를 할까?



| 프로필 | 제12대 (사)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역임
극단 홍성무대 고문 / 홍성고등학교 교사

운동화 두 켤레는 아직도 성한테 누구를 줄까? 모두 닳게 하려면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야 되는데…… 또 주면 새것도 아닌 것을 버리지 생색만 낸다고 욕은 하지 않을까?

밥그릇을 씻다가 개수통에 떨어뜨려 깨지면서 손을 베었다. 이제 밥그릇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귀국할 때를 알아서 깨지는 것일까?

찌개도 끓여 먹고 라면을 끓이는 손잡이가 있는 냄비도 손잡이 부분 리베팅한 곳에서 물 한 방울씩 새고 있다. 사야 할지, 그냥 견뎌야 할지.

반찬그릇도 깨지고 이 빠져서 고추장통, 된장통을 임시변통으로 반찬그릇으로 쓰고 있다. 식용유는 커다란 병을 샀더니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고, 두 번째 산 참기름도 반병이나 남아있어 날계란 먹듯이 후루룩 마셔야 될지.

매일 마시는 맥주병 수는 늘어가고 아내가 보내온 마른 멸치는 안주로 점점 없어져 간다. 맥주병 뚜껑을 따면 정제(精制)라는 글씨가 써져있는 게 있다. 이 뚜껑 한 개를 가져가면 5毛(마오)를 쳐준다. 맥주 한 병이 2원이니 네 개면 한 병과 바꿀 수 있다. 한 달 정도 부지런히 모은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모은다. 병뚜껑으로 대어섯 병을 보너스처럼 받을 때 입이 찢인다. 병을 따면 우선 뚜껑의 안쪽을 쳐다보다가 맞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5마오에 기분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돈으로 하면 90원 정도, 우리 돈 100원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줍는 사람 있을까? 길 막히는 사거리에 아이를 업고 구걸하는 아줌마를 만나면 1마오, 혹은 2마오 등 잔돈을 준다. 고개를 열 번 정도 구부리며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무엇을 살 수 없는 적은 돈이다. 지갑과 주머니의 지저분한 잔돈을 처리하는 것이다. 1마오, 2마오 혹은 5마오에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중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조그만 아니 커다란 행복이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데, 우린 그런 조그만 행복을 놓치는 게 아닐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생각을 하며 주위를 살피면 모든 게 행복의 요소이다. 

※ 2013~2014년 중국 산둥의 라오청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할 무렵 심정을 썼음. 마오(毛)는 중국 화폐 단위로 1원의 1/10 가치임.



시 & 수필

+

어느 아버지의 꿈

어느 아버지의 꿈

이영희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햇살 창창한 음악실에서
음표들 사이로 어릴 적 꿈이 묻어난다.
장날이면 들려오던 악사의 노랫가락
쫓르르 달려가
연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던 그날
악사의 꿈이 담겨있다
읍내 악기점 유리건너에 놓여있는
흑단빛 아코디언에 머물던 눈빛
기성회비에 밀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꿈
다시 꺼내 펼친다.
마음은 금방 고수의 소리를 탐 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 속에 머문 파열음
길게 펼쳐진 악보처럼
아직은 걸어갈 길이 넓고 크게 열려있어
아침 눈만 뜨면 아코디언 건반을 만진다.



시 & 수필
+
선물

선물

송미경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나이 들어
혼자 텅그러니 남겨져
나 좀 봐달라고
외로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고
혹여,
119에 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 발이 열심히 움직인다지만
훗날,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날 수 없으면
선물 하나 놓고 가요
사람이란 선물
선물 하나 놓고 가요
사람이란 선물



회상

김행분
웃음치료 강사

덜컹하고
열릴 것만 같은 방문이
단단히 힘을 주고 있다

방안문고리에 걸어 놓은 순가락이
버팀목이다

방문에 한지를 발라 놓은 스크린엔
방문 고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거인의 그림자가 어릿거린다

꽝
꽝꽝
꽝 꽝 꽝
열어! 열 으 라 고...

아! 듣기 싫던 저 목소리가
가을에 실려 왔으면

아버지는 가는 그날까지
문고리를 이기지 못하셨다

축복

이 미 나

홍성문예아카데미 회원

늦은 나이 결혼하여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언제고 나는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기도를 하게 된다. 이른 새벽 예배당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큰 축복을 내리실 것 같은 예감으로 충만해진다. 돌아오는 길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는 내 귀에 행복의 전주곡으로 들려졌다.

그러기를 며칠, 자꾸만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다. 하품이 연거푸 나온다. 들뜬 마음에 산부인과를 가니 임신이라 하였다. 초음파로 뱃속에 착상된 수정란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다. 태곳적부터 예정된 신비한 인연이 내 몸에 들어앉는 고귀한 생명에의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내 운명을 바꿔놓는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첫날을 들뜬 마음으로 보내고 나날이 성장해가는 태아는 내 삶의 빛이었다. 어느새 기관들이 형성이 되고, 펌프질하듯 들려오는 심장박동은 어서 엄마를 보고 싶다는 울림으로 느껴졌다. 중추에서 말초로 섬세하게 형성되는 그 신묘한 솜씨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 초겨울,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아기가 태어났다. 뽀얀 살결에 지그시 눈을 감은 아가는 주위의 기쁨에 들뜬 소요에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술한 기도와 축복 속에 탄생한 우리 아가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하고 고백하는 엄마의 품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하룻밤을 보냈다.

예원이라고 예쁜 이름도 갖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아가는 점점 성장하여 었치기도 하고 웅알이도 하고 유모차도 타게 되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언제고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였다.

밖에 나가면 “저기 아가 좀 봐, 어쩜 그렇게 예쁘냐.”하고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천진무구하고 귀여운 얼굴에 시선을 모으는 것이다. 세파에 시달려 이맛살이 잔뜩 찌푸린 사람들도 친구가 되려는 듯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떤 이들은 예원의 싱그러움에 부러움의 눈짓을 보내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희망의 멜로디로 열정의 스타카토를 치고 있다. 하늘에서 포근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교회 종소리도 울려 퍼진다. 아파트 공원 장미들은 그 따스한 바람에 휘감겨 왈츠를 추고 있다. 비가 내려도 녹턴같이 오히려 낭만적이었다.

농밀한 어둠의 시간, 온 세상 침묵으로 고요를 한껏 느끼게 하며 영롱한 별빛 같은 너의 눈빛에 매료된다. 화석처럼 굳은 내 상흔들마저도 해맑은 너의 웃음 앞에서 아물어간다. 그렇게 너는 사위어가던 나의 삶도 역설처럼 일어서게 하였다.

이제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가라. 그래서 인생의 가을을 지나는 이에게 새로운 봄의 생명의 씨앗을 가르쳐주려무나. 이제 너는 사랑으로 성장해가라. 그래서 나부끼는 삶의 고난을 당하는 이와 함께 하려무나. 그래서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어느 때건 가뭄에 대지를 적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단비처럼 희망이고 환희가 되려무나.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는 거룩한 기도처럼 딸에게 마음의 편지를 써 내려갔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예원은 두 팔을 벌리며 환호한다. 길옆 장미도 응원하듯 빙긋이 미소를 보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곧 퇴근이라는 남편의 전화에 충충히 발걸음을 옮긴다.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지만 붉게 물든 하늘엔 충만한 꿈들로 설레고 있었다. 



독자기고
+
러시아 문화탐방

러시아(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3박4일 문화탐방을 가다

정미선
홍성문화원 회원

홍성문화원 문화탐방팀은 인천공항에서 러시아항공 오로라 항공기를 탔다. 북한과 친교가 있기 때문에 북한 상공을 난다. 북한 마을을 열심히 보려했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려 보진 못했지만 북한 상공을 난다는 느낌 때문인지 기분은 야릇했다.



하바롭스크 공항에 오후 5시 30분에 도착. 카페 분위기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아무르강을 갔다. 러시아는 호텔과 식당, 박물관 외에는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가야한다. 우리 돈으로 400원(20루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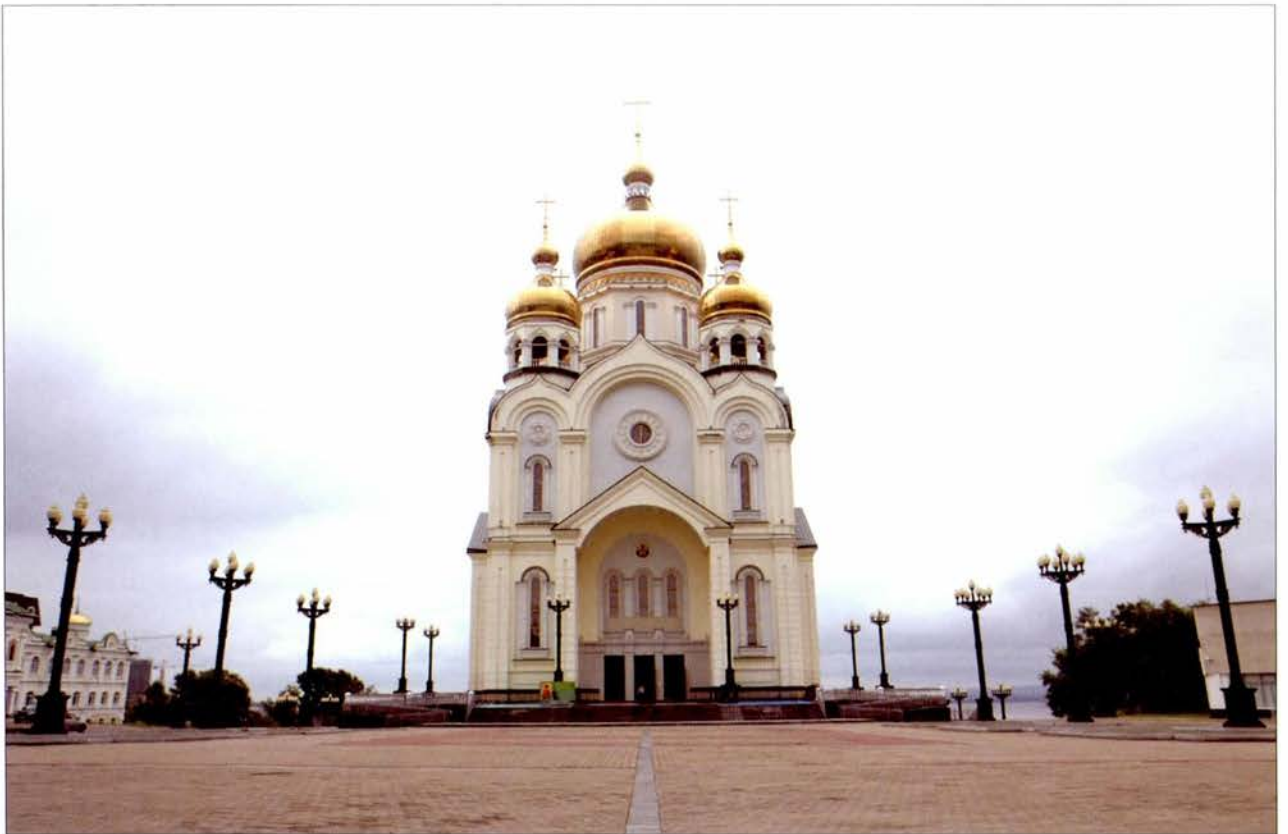
우리나라 60~70년대 있었던 전기줄로 운행하던 전차가 다니고 있었고 버스 안내양도 있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여자들도 꽤 많았다. 러시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해 천연가스관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약간 불안한 점도 있지만 안전하다고 한다.

겨울은 7개월 정도라 기나긴 추위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중창문, 이중문으로 단열이 잘 되어있고 하바롭스크는 한반도의 1.4배정도로 한국보다 1시간 빠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9시간 시차가 날 정도로 큰 나라라고 한다.

아무르강

아무르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 풍경을 바라봤다. 흑룡강성이라고 부르는 곳.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맞물려 흐르는 강. 잔잔하고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둘째 날, 우리 일행은 우초스 전망대,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 동상, 영광의 광장, 영원의 불꽃, 꿈소몰스끼야 광장, 러시아 정교회 등을 둘러봤다.



성당이라고 하는 정교회는 황금빛 돔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눈앞에 서있었다. 입장 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들어가야 한다. 십자가는 정교회를, 가운데 촛불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오직 찬양할 때는 악기 없이 성도들의 목소리로 두 시간 내 서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레닌광장



레닌광장 앞에는 분수대가 있고 차가 다니는 옆쪽으로 레닌 동상이 있었다. 하바로스크에서 레닌광장은 주청사와 의과대학 사이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갔을 때는 결혼웨딩 촬영을 하는 신혼부부가 있었다.

첫 인상은 비둘기가 주인공처럼 한가로이 노닐고 있었고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 1917~1922년까지 혁명을 주도하고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된 인물이다.

우초스 광장, 성모승천 성당

우초스 광장에서 내려다보면 아무르강을 다시 볼 수 있고 성모승천 성당은 뾰족한 지붕으로 파란색이다. 앞에서 본 정교회의 황금색과는 달리 내부에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성당 옆에는 혁명 내전 기념탑(오벨 리스크)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아직 다듬지 못한 울퉁불퉁한 역으로 갔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렸다. 고가 밑에서 비를 피하며 이 비가 한 국에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저 좋기만 하다.



셋째 날, 밤새 11시간을 달려 드디어 블라디보스톡역에 도착했을 땐 아침 8시. 가끔 차창 밖으로 봐오던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아무르 강줄기를 따라 왔나보다. 같은 객실에서 타고 온 아는 모자의 아들이 “강 가운데에 있는 물체가 잠수함이다.”라고 말하자, 엄마는 “저건 잠수함이 아니고 섬이야.”라고 말하는 거다.

그렇듯 바다와 같은 강은 그렇게 넓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협소했지만 나름대로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네 명에서 잤다는 것이 큰 의미였다. 특히 베개는 가져오고 싶을 만큼 폭신하고 좋았다.

신양촌 고려인(까레야스키)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착한 만주인은 최초 13가구였는데 지금은 고려인협회 한분만이 지키고 계셨다. 위령탑의 세 개로 된 돌기둥은 첫 번째 왼쪽은 고려인, 가운데는 한민족, 세 번째 오른쪽은 한인을 뜻하고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돌은 흩어진 재외 동포를 뜻한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억압을 피해 북으로 떠났던 시절, 각박한 이 시절에 척박하고 황무지였던 곳에 뿌리를 내리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난한 세월을 보낸 고려인들의 한이며 이민사이며 개척사를 우린 눈물로 보았다.

고려인협회 회장님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이시며 자랑하신다. ‘고려인이여 대한민국과 영원하라’라고 방명록을 쓴 후 콧수염이 안중근 의사와 비슷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회장님과 같이 한방 팡!! 사진을 찍었다.



재래시장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시장 같은 곳인가? 러시아는 풍부한 과일, 꽃, 특히 고려인들의 3~4세가 파는 반찬가게가 인상적이었다. 반찬마다 당근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길거리에는 생맥주를 파는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고 우리의 70~80년대 길거리 모습의 시원한 냉차, 아이스크림 파는 느낌이 들어 친근감이 들었다.

향토 박물관

3층으로 되어있는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1884년도에 지어진 곳인데도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깨끗하고 쾌적했다. 1층에는 동물들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었고 종류가 다양했다.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우리역사 발해역사의 술빈부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라 한다.

계단 올라가는 창문이 스테인글라스로 되어있어 유럽의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문과 천장은 높고 넓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 러시아의 격동기 근현대사를 볼 수 있었다.

3박4일 간의 일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역사, 문화를 안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다. 다음에 올 때는 여러 일정을 두고 천천히 꼼꼼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회 홍성역사인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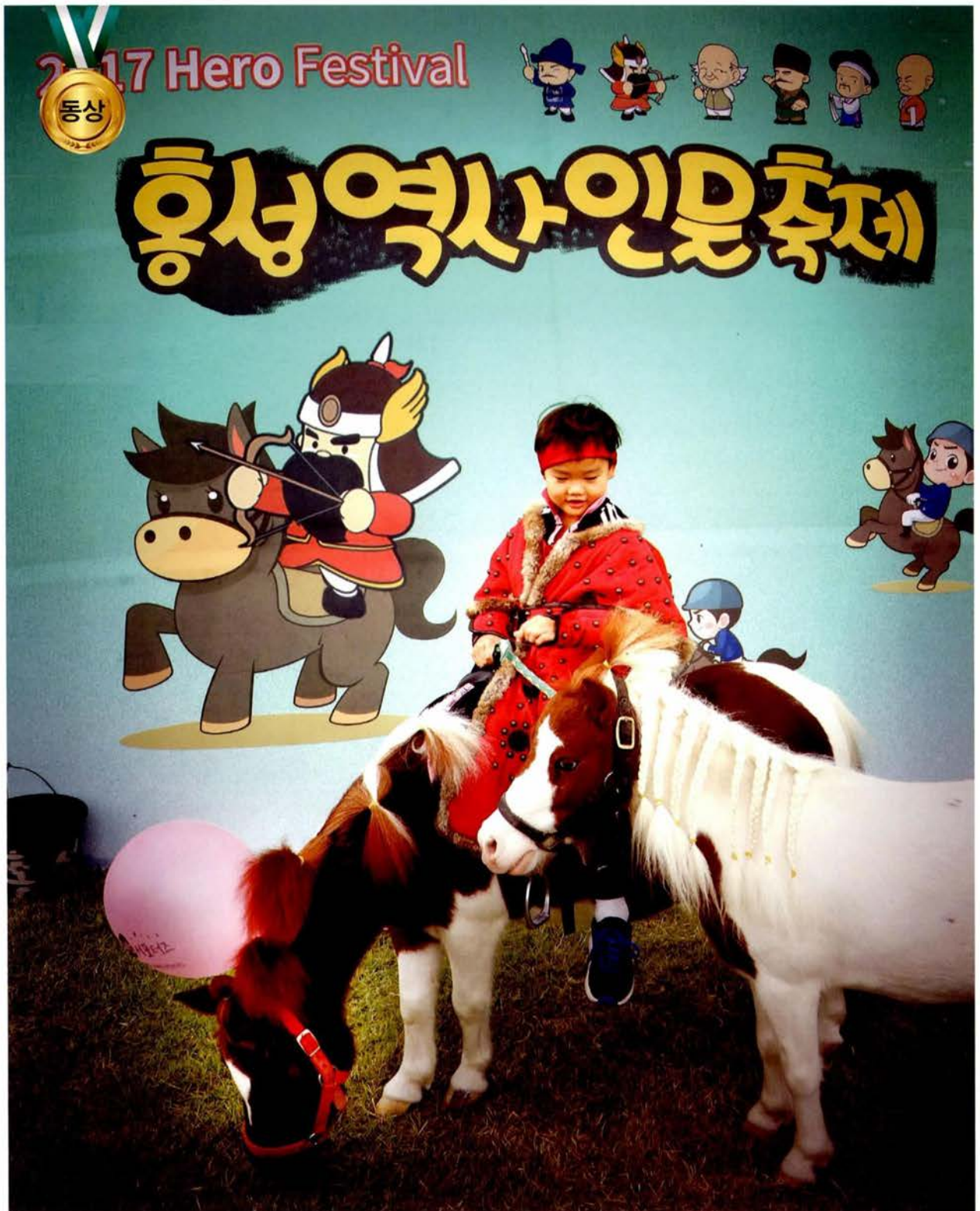
송진호_가야금 산조



김철호_행복



남주하_꿈길



차봉주_홍성역사인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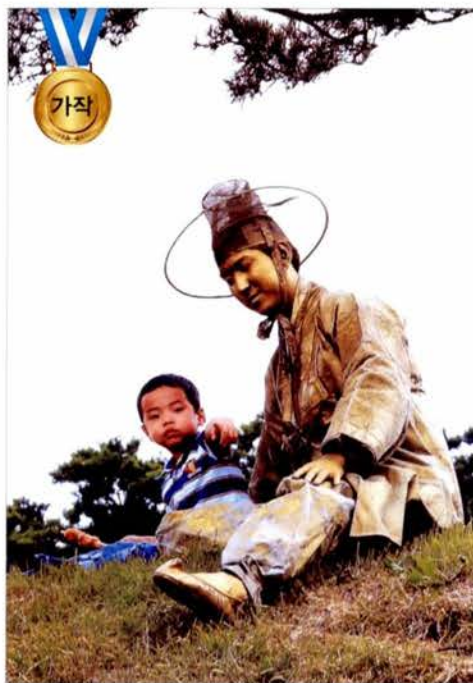
이상혁_귀여워



이세용_우리가락 좋을씨구!



윤성철_상여



장순자_동심



원숙희_동심1



이운재_활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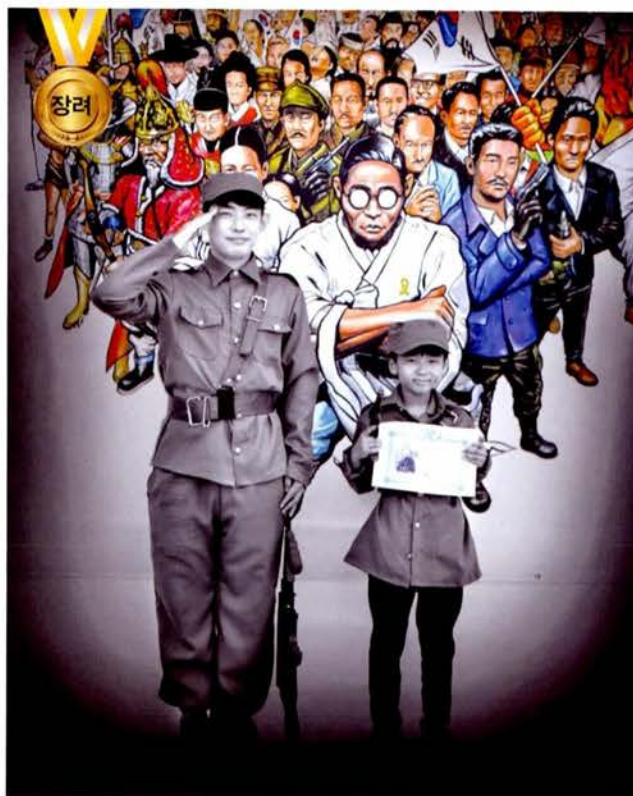
조태섭_소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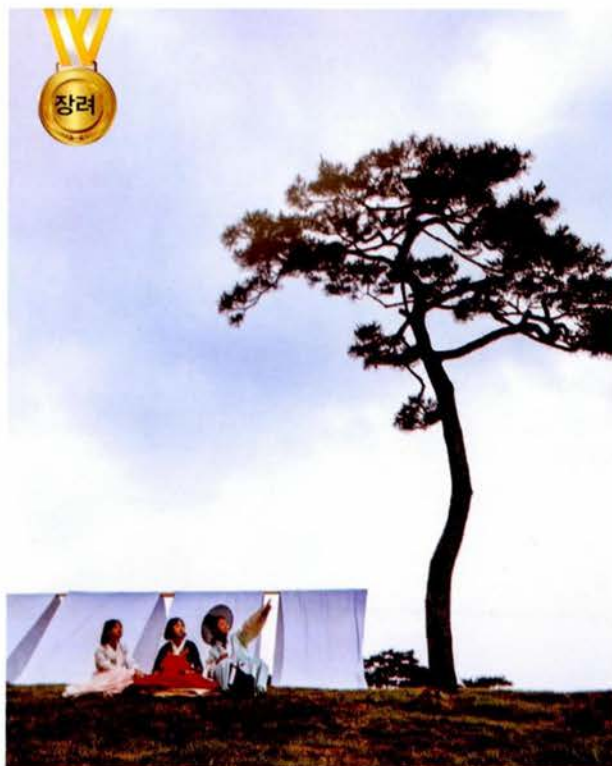
서신일_우리는 하나!



신귀옥_연인 이야기



임철민_충성!



김선희_나들이



이세일_열심히

홍성문화원 소식 -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및 음악회

한여름 밤의 음악과 영화의 만남, 무더위를 식히다

지난 7월 25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광천 하상주차장 · 홍북 내포홍예공원에서
홍성문화원, 거리영화제 및 음악회 개최 ... 영화 '공조 · 인천상륙작전' 무료상영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거리영화제 및 음악회가 열렸다.

홍성문화원은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광천읍 하상주차장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 및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9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및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화 상영에 앞서, 1부 음악회에서는 초청가수 하이런 공연을 시작으로 예그리나(우쿨렐레), 달빛색소폰합주단(색소폰), 임기숙 외 3인(민요), 김나운(초청가수) 등이 출연해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 주었다.

2부 거리영화제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 무더위로 쉽게 잠 들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했다. 이번에 상영한 영화는 김성훈 감독의 '공조'로 현빈, 유해진, 김주혁 등이 출연한 125분짜리이며 15세 관람가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상영됐다.

다음 이어지는 제20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및 홍북읍 승격기념 음악회는 지난 9월 15일 오후 6시 30분 홍북읍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홍북읍 내포홍예공원에서 역시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1부 음악회는 홍주기타랑 통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모은혜 외 2인(팬플루트), 행복지기(포크기타), 달빛색소폰합주단(색소폰), 유준(초대가수) 등이 출연해 홍북읍 승격을 기념하는 음악회로서 보다 다양한 공연을 선사했다.

2부 거리영화제에서 이번에 상영한 영화는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정재, 이범수, 리암 니슨, 진세연 등이 출연한 110분짜리며 12세 관람가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상영됐다.

이번 행사에서 문화원은 공연 중에 시원한 수박과 달콤한 팝콘을 무료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야외공연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했다.

한편, 거리영화제 및 음악회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문화가 있는 날'과 더불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정서함양을 제공하고, 주민세대간에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돼 매년 지역민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오고 있다. 

홍성문화원 소식 - 역재방죽 달빛데이트

방죽도 걷고 공연도 보고, 역재방죽 달빛데이트 개최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홍성문화원 앞마당 및 역재방죽공원 일원에서 소규모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공연 실시 ... 지역민 문화욕구 충족 및 휴식제공

홍성문화원은 지난 8월 30일 저녁 7시 30분 홍성문화원 앞마당 및 역재방죽공원 일원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가졌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문화가 있는 날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처음 공연을 가진 이후로 올해 3년째 매년 한여름 밤에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새로운 공연문화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재방죽 달빛데이트 행사는 국민의 생활 속 문화체감 확대와 문화활동 독려 및 문화예술동호회 교류지원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소규모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이 문화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흥겨운 가락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아코디언, 우쿨렐레, 오카리나, 팬플루트, 시낭송, 필라테스 현대무용, 포크기타, 민요, 팝페라, 색소폰, 초대가수 하이런과 노네임밴드 등 다양한 문화예술동호회가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달빛아래 홍성문화원의 앞마당과 역재방죽공원에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온 지역주민들로 북적였는데, 자유롭게 방죽도 걷고 저마다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공연도 즐기는 모습이 진풍경을 이루었다.

한편, 홍성문화원은 자연과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도 최근 충남도청의 이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유형의 유입에 관심을 갖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 및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며 군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



홍성문화원 소식 - 제4회 내포콰르텟 정기연주회

홍성문화원, 내포콰르텟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개최

지난 11월 23일 오후 7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내포콰르텟 ... 꾸준한 노력으로 치유와 소통의 '4중주' 선율 선사

홍성문화원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7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내포콰르텟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지난 2014년 홍성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첫 창단연주회를 선보인 이후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정기연주회는 매년 다양한 클래식 곡의 향연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포콰르텟은 국내외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수준 높은 전문음악인 이영화 단장을 비롯한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문화원 소속 관현악단으로, 매년 꾸준한 연습과 공연활동을 하며 음악을 통한 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콰르텟(Quartet)’은 네 사람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4중주 또는 4중창을 펼치는 공연을 말하며, 이번 내포콰르텟 연주단은 첼로 이영화, 바이올린 권영경, 이윤미, 피아노 백동현씨 등 4명으로 구성돼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내포콰르텟과 아코디언·해금연주자의 협연으로 헨델 ‘울게하소서’, 쇼스타코비치 ‘재즈 왈츠 2번’, 그리운 금강산, 신아리랑, 알라딘 OST, 아기공룡둘리 OST, 알란 멘켄 ‘미녀와 야수 OST’, 카를로스 가르텔 ‘여인의 향기OST’,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야상곡, 시크릿 가든 OST 그남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등 귀에 익숙한 명곡 연주로 깊어가는 가을밤에 더욱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내포콰르텟 정기연주회는 홍성문화원이 주최하고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매년 무료공연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포콰르텟은 음악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역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홍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7월 8일(토) 오후 7시 30분~9시 30분,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지난 2013년 첫 정기 공연을 선보인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매년 다양한 우리가락의 향연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문화유산인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악관현악의 전통성과 우월성을 알리고자 꾸준한 연습과 국악강습, 공연활동을 하며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문화탐방(4, 5, 6회차)

7월 21일(금)~22일(토) 4회차 여수순천문화탐방은 전남 여수로 향일암, 오동도, 여수야경과 순천으로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태백산맥문학관, 낙안읍성을 둘러보는 1박2일 코스로 지역주민 78명이 참가했다.

또한, 11월 3일(금) 오전 8시부터, 5회차 청주문화탐방은 충북 청주로 청남대, 문익문화재단지와 대전 동춘당 공원을 다녀오는 코스로 지역주민 73명이 참가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목) 오전 8시부터, 6회차 인천문화탐방은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과 동화마을, G타워 전망대, 소재 역사관 및 포구를 둘러보는 코스로 지역주민 79명이 참가했다.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우리의 전통 역사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는 현장체험으로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제22회 만해추모다례 및 추모공연

8월 29일(화) 오후 5시~9시, 만해생가지 일원에서 홍성군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매년 불교사상이자 독립운동가이시며 시인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청소년에게는 자금심 고취와 애郷심을 심어주고자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추모다례는 만해 탄신 138주년을 맞아 추모다례와 함께 추모공연(지역문화예술단체 아코디언/민요/달빛색소폰합주단, 만해시낭송, 홍주국악관현악단, 결성노래교실합창단, 초청가수 유준/하이런/노내임밴드), 만해체험행사(태극무용만들기 퍼포먼스, 만해시/가훈쓰기), 만해자료사진전, 만해포토존 등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펼쳐져 추모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 행복무대' 참가

9월 16일(토)~17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 2일간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열린무대에서 어른이 행복무대가 열렸다. 홍성문화원은 16일(토) 오후 5시 달빛색소폰합주단 어르신 1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고, 축제의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맘껏 즐기며 어울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 문화시설단체(개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실버문화축제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을 기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개최됐다.



제27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9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홍성군 홍성역사인물축제장(홍주읍성)에서 개최된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홍성군 선수단 및 임원 50여명이 참가, 올해도 민속씨름 종목에서 1위, 힘자랑에서 3위, 노래자랑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여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행사는 중도일보가 주관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여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참가하는 충남도민의 민속한마당축제로 다양한 민속경기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2017 홍북읍 승격기념 음악회

9월 16일(토) 오후 7시~9시, 홍북읍 내포홍예공원 일원에서 홍북읍 승격을 축하하는 자리로 홍북읍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는 초대가수 하이런 공연을 시작으로 행복지기(포크 기타), 임기숙 외 4인(민요), 하모사랑(하모니카), 홍주기타랑(통기타), 김경아·서점마·서하(초대가수), 내래핀 듀오(팝페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고 관객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제2회 추석맞이 추억의 공쿨대회

10월 4일(수) 오후 7시~10시, 홍주성 여하정 무대에서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과 귀성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노래잔치를 벌였다. 마을 또는 지역마다 열리던 공쿨대회를 재현해 지역주민들에게 추억의 향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군민과 출향귀성객들의 만남의 장은 물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공쿨대회는 홍성군 11개 읍면대항 노래열전으로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15개 팀이 참가해 지역별로 열린 응원전을 펼쳤고, 가족이 무대에 오르면 앞으로 나가 덩실 춤도 추며 화합의 장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쿨대회에서 홍복읍 강선희씨가 영광의 대상을 수상, 상장과 상금(온누리 상품권) 50만원을 수상했다.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성과사업 '충남의 어르신, 문화로 소통하다' 참가

10월 18일(수) 오후 2시~4시, 태안군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개최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성과사업에 홍성문화원 스마일 공연 봉사단(달빛색소폰합주단) 어르신 10여명이 참가, 그동안 갈고닦은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충남문화원연합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여 충남도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9개 문화원의 참여어르신들이 참가하는 어르신문화축제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역량을 널리 알리고, 권역별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 교류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재즈가 있는 가을 음악회

11월 30일(목) 오후 7시~9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재즈 오케스트라 홍순달 밴드를 특별초청하여 재즈가 있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특히, 대중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재즈를 귀에 익은 음악들로 재즈 선율로 풀어내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어 관람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혜택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공연으로 추진됐으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활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12월 8일(금) 오후 6시 30분~10시 30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과 1층 공연장에서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1년간 갈고닦은 솜씨와 끼를 맘껏 자랑하는 문화학교 발표회가 펼쳐졌다.

이날 발표회는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서예, 문인화, 서양화, 한문서예, 도예, 지승공예 등의 작품 전시회와 요가(전통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라인댄스, 플루트, 실버로빅, 오카리나, 통기타, 난타, 민요, 풍물놀이, 노래, 풍수지리, 스피치스킬 전문과정, 아코디언 등의 공연발표회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강자의 질적 향상은 물론 양적 팽창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홍주천년맞이

송년음악회

ADIEU 2017

2017. 12. 26 (화)

홍주문화회관

1부 17:30

2부 19:00

주관 : (사)홍성연예인협회
소명, 김수찬, 유미, 서진진, 신승아, 이현아, 서점마, 이환호

주관 : 홍성문화원
이치현과 벗님들, 팬텀싱어 에클레시아, CH챔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무료관람 문의 1644-9289, 홍성문화원 632-3613, (사)홍성연예인협회 631-8765

후원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홍성군, 홍성군의회

2017 홍주천년맞이 송년음악회

12월 26일(화) 오후 5시 30분~9시,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사)홍성연예인협회 주관으로 소명, 김수찬, 유미, 서진진, 신승아, 이현아, 서점마, 이환호 등 전통가요 초청가수가, 2부는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소년소녀합창단, CH챔버오케스트라, 팬텀싱어 에클레시아, 이치현과 벗님들 등이 출연해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며 홍성군민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희망에 찬 2018년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무료공연으로 마련됐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고 흥겨운 자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아 성황리에 끝마쳤다.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홍성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학교를 연중 운영, 매년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하반기는 한글서예, 국선도, 요가(전통요가), 탁구, 라인댄스, 문인화, 플루트, 실버로빅, 서양화, 오카리나, 통기타, 요가(필라테스), 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난타, 민요, 풍물놀이, 풍수지리, 스피치스킬 전문과정, 노래, 아코디언, 한문서예 등 27개 강좌를 운영했다.



향토도서관 운영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향토도서관을 연중 운영, 홍성문화원 회원이면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등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향토문화소식지 『홍성문화』 발간

홍성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소식을 기록하고 해석,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향상과 우리고장을 더욱 알리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홍성문화'를 연2회 발간, 매년 6월 말과 12월말에 각 1,000부씩을 발행한다.

홍성군민, 기관단체를 비롯한 전국지방문화원과 유관기관, 도내도서관, 문화원 회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해오고 있다.



음악감상실 운영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음악감상실을 연중 운영,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개인소장 CD(복제 CD 제한)를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이용기록부를 작성하고 나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청소년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우리지역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오카리나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와 협동심을 기대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청소년(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악기교육과 합주연습을 실시했으며, 10월 28일(토) 오후 2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단원들은 수료식 및 연주발표회를 가졌다.

어르신문화활동지원 '스마일 공연 봉사단'

색소폰, 아코디언, 통기타, 풍물패, 난타, 민요, 국악 등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양로원, 요양원 등 문화소외지역 및 불우한우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을 실시, 어르신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노년생활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단원 40명을 구성,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함께 관내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는 공연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문화·체육확산과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문화봉사자(공급자)와 봉사자가 필요한 활동체(문화시설/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칭시스템으로서, 이 사이트를 통해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들은 필요한 봉사자를 손쉽게 모집·관리할 수 있으며,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홍성문화원은 2014년 12월부터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홍성관내 문화자원봉사자와 활동처들에게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홍성문화』 원고모집

독자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모집합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시, 소설, 에세이, 사진 등 : A4 2~5장, 글자 10Point

4컷 혹은 8컷 카툰 : 14×15cm, 1654×1772픽셀 이상 300dpi의
jpg파일 형식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 고해상도 원본파일(1654×1772픽셀 이상)

보내실 곳

3223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사무국

T. 041-632-3613 F. 041-633-1199

E. hscult@naver.com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필자의 사진과 원고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홍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대 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총회 의결권 부여(12개월 이상 납부자)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문화탐방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일부 강좌 제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및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의 ☎(041) 632-3613

2018년 1학기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안내

강좌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수강료	강사	장소
주 간 강좌						
한글서예	1.08~3.26	월 10:00~12:00	15명	6만원(3개월)	김자옥	3층 강의실
도자기핸드페이팅	1.08~3.26	월 10:00~12:00	20명	9만원(3개월)	이영숙	3층 동아리실
국선도	1.03~3.30	월,수,금 16:00~17:00	25명	6만원(3개월)	정기영	3층 전통예절실
요가A(고급과정)	1.03~3.30	월,수,금 09:50~10:50	25명	15만원(3개월)	이영구	3층 전통예절실
요가B(고급과정)	1.03~3.30	월,수,금 11:00~12:00	25명	15만원(3개월)	이영구	3층 전통예절실
요가C(전통요가)	1.02~3.29	화,목 10:00~11:00	25명	6만원(3개월)	최경순	3층 전통예절실
요가D(전통요가)	1.02~3.29	화,목 11:10~12:10	25명	6만원(3개월)	최경순	3층 전통예절실
캘리그래피	1.02~3.27	화 10:00~12:00	30명	9만원(3개월)	김서구	3층 강의실
탁구	1.02~3.29	화,목 09:30~11:30	15명	9만원(3개월)	박경자	2층 전시실
라인댄스	1.02~3.29	화,목 17:30~18:30	25명	9만원(3개월)	김임숙	3층 전통예절실
문인화	1.03~3.28	수 10:00~12:00	20명	6만원(3개월)	양정자	3층 강의실
플루트	1.03~3.28	수 10:30~12:30	20명	9만원(3개월)	노문옥	3층 동아리실
실버로빅	1.03~3.30	수,금 14:30~15:30	30명	3만원(3개월)	이은경	3층 전통예절실
서양화	1.04~4.26	목 11:00~13:00	15명	12만원(4개월)	이 안	3층 강의실
오키리나	2.02~3.30	금 10:00~12:00	20명	4만원(2개월)	황유정	지하 연습실
노래	연중수시	월 14:00~16:00	100명	3만원(3개월)	하이런	1층 공연장
아코디언	연중수시	수 15:00~17:00	15명	9만원(3개월)	오윤상	지하 연습실
한문서예	연중수시	금 15:00~18:00	15명	15만원(3개월)	김창수	3층 강의실
야 간 강좌						
스피치스킬전문과정	1.08~6.25	월 19:00~21:00	20명	18만원(6개월)	김덕자	3층 강의실 (자격증응시료별도)
통기타A(초급)	1.08~3.26	월 19:00~21:00	20명	9만원(3개월)	오왕근	3층 세미나실
통기타B(중급)	1.04~3.29	목 19:00~21:00	20명	9만원(3개월)	오왕근	3층 세미나실
요가E (발레핏 필라테스)	1.03~3.30	월,수,금 19:00~20:00	25명	9만원(3개월)	이순천	3층 전통예절실
요가F (발레핏 필라테스)	1.03~3.30	월,수,금 20:00~21:00	25명	9만원(3개월)	이순천	3층 전통예절실
요가G (필라테스&에어로빅)	1.02~3.29	화,목 19:00~20:00	25명	6만원(3개월)	이은경	3층 전통예절실
요가H (필라테스&에어로빅)	1.02~3.29	화,목 20:00~21:00	25명	6만원(3개월)	이은경	3층 전통예절실
난타	1.02~3.27	화 19:00~21:00	20명	6만원(3개월)	박미라	지하 연습실
민요	1.02~3.27	화 19:00~21:00	15명	6만원(3개월)	임기숙	3층 강의실
산삼약초 및 민간요법	1.03~6.27	수 19:00~21:00	30명	18만원(6개월)	홍영선	3층 강의실
풍물놀이	1.03~3.28	수 19:00~21:00	20명	6만원(3개월)	황규현	지하 연습실
풍수지리	1.04~4.26	목 19:00~21:00	20명	12만원(4개월)	김시환	3층 강의실
치매재활레크레이션 지도사1급자격과정	1.05~6.29	금 19:00~21:00	20명	18만원(6개월)	김덕자	3층 강의실 (자격증응시료별도)
색소폰(초급)	1.05~3.30	금 19:00~21:00	15명	9만원(3개월)	장익성	지하 연습실

※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강사, 강의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년 1월 첫째주부터 개강, 강좌별 3~6개월간 운영
- 접수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선착순 마감, 우선 입금자부터 적용)
-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454-01-003876 홍성문화원 (강좌명, 수강자명 기재, 입금후 전화요망)
- 접수문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hsgcc.co.kr>) 참조
- 기타사항 : 등록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개강 후 정원미달인 강좌에 한해서 추가접수 가능

※ 신규강좌 개설에 관한 제안이나 상담 가능합니다.

[홍성문화 표지]

+
억새



‘아아, 으악새(억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억새는 주로 산에서 자랍니다.

특히 광천의 오서산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살랑살랑하고 야들야들한 억새는

홍성의 산과 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산한 늦가을날, 어쩐지 외롭고 어쩐지 입이 심심하다면
오서산에 들러 남당리로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나긋한 억새와 펄펄뛰는 대하,

가을여행 궁합이 딱 입니다요~. 



 **홍성문화원**
HONGSEONG CULTURAL CENTER